

경성의 5대백화점의 융성과 그것을 지탱한 대중소비사회의 검증

- 주로 소화(昭和) 초기부터 소화 15년 전후까지 -

하야시 히로시게(林 廣茂)

I. 머리말 : 三中井백화점의 흥망과 조선 사회의
일본 적응화

II. 三中井의 창업으로부터 조선 최고 백화점으로
의 길

1. 창업
2. 성장·발전
3. 경쟁
4. 三中井의 업적

III.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

1.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를 정의한다
2. 경성부의 일본 적응화를 검증한다
3.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를 검증한다
4. 화신백화점의 도전
5. 조선의 경제력

IV. 맺음말 : 전후 한국인에 의한 일본으로부터의
경영·마케팅기술의 AI이전의 원류

I. 머리말 : 三中井백화점의 흥망과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

三中井(미나카이)은 明治 38(1905)년, 조선의 대구에서 창업했다. 창업 때의 상호는 三中井商店이다. 동 40년 三中井吳服店으로 이름을 바꿨다. 동 44년, 경성으로 본거를 이전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화한 것은 소화 4(1929)년, (주)三中井吳服店 경성본점 낙성 때부터이다.

소화 8(1933)년 오랜 염원이었던 三中井백화점 경성본점이 완성되었다. 지상6층 지하 1층 건물로, 토지는 808평, 연 2504평의 백로와 같이 수려한 빌딩이었다고 한다.

三中井은 소화 20(1945)년 패전시에는 조선에 12점포, 만주에 3점포, 중국에 3점포,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는 滋賀현(시가현) 金堂(곤도)을 총본부로 하여 교토 본사, 오사카와 도쿄에 매입부를 가진, 조선·중국 대륙 최대의 백화점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가장 많았을 때 직원수는 4000명, 연간매상 1억엔의 규모였다. 현재 가격으로 5000억엔으로 추정된다(도표1 : 조선에 있는 三中井본·지점 소재지도).

三中井은 패전과 함께 붕괴했다. 그리고 전후 일본 국내에서 재건되지 않고 소멸하여, '환상의 三中井백화점'이 되었다.

三中井에 대해서는 末永國紀 (1997, 2000)의 선행 연구가 있다. 일본 국내에 현존하는 문헌과 三中井 관계자의 증언을 기초로 한 연구이다. 필자는 그에 머무르지 않고, 명치 9(1876)년의 조선 개국으로부터 소화 20(1945)년의 일본 패전까지의 ‘일조(한)관계사와 조선에서의 백화점업의 성장·발전’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 三中井을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경성에 기반을 두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4대 백화점인 三中井, 三越(미츠코시) 경성점, 丁子屋(조지야), 平田(히라타), 조선인이 경영한 和信을 문헌과 인터뷰를 통하여 사례연구하여, 일본으로부터 일본 적응화한 조선으로의 ‘백화점 경영·마케팅 기술의 이전’을, 필자가 오랫동안 제창하고 있는 ‘SAL발전이론’과 ‘AI발전이론’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검증했다.

SAL발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조선에 진출한 기업이 일본(모국)에서의 경영·마케팅 프랙티스를 현지에 그대로 표준화(Standardization) 이전하든지, 현지에 적응화(Adaptation)이전하든지, 조선에서 현지화하든지(Localization), 아니면 이 3개의 모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합하여 사업의 성장·발전을 실현하는 경영 방식이다.

AI발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지기업이 일본의 경영·마케팅 프랙티스를 먼저 채용하여 모방하고(Adopt and Imitate), 나아가 적응하여 혁신하고(Adapt and Innovate), 마침내 숙달하여 창조하는(Adept and Invent), 자사의 독자성을 확립한 사업의 성장·발전을 실현한다.

또 소화 10(1935)년 전후의 조선 경성에서 5대 백화점(三中井, 三越, 丁子屋, 平田, 和信)이 번성했는데, 그것을 지탱해줄 만한 구매력을 갖춘 ‘풍요로운 대중소비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검증했다. 그 풍요로운 사회는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한 압도적 다수의 조선인과 소수의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일반화되고 상식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억압·수탈하는 일본인만이 풍족하게 살고, 조선인은 저항을 계속하며 굶주렸다는 ‘억압과 저항, 수탈과 빈곤’의 역사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시에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三中井백화점을 중심으로 경성의 5대 백화점의 발전을 더듬어가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프라스트럭처인 당시의 ‘풍요로운 대중소비사회’를 재현·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은 줄저 《환상의 三中井백화점~조선을 석권한 近江상인·백화점왕의 흥망~》(晩聲社, 2004년)의 제 1장에서 제 3장을 가필·수정한 것이다.

II. 三中井의 창업으로부터 조선 제일의 백화점으로의 길

1. 창업

명치 38(1905)년 조선 대구에서 ‘三中井백화점’의 창업으로부터 명치 44(1911)년 ‘三中井吳服店’ 본점을 경성으로 이전하기까지.

1) 대구에서의 창업

三中井의 창업자는, 장남 3대 中江勝治郎, 차남 西村久次郎, 3남 中江富士郎, 5남 中江準五郎 등 中江 4형제이다. 그들의 생가는 17세기 중엽부터 계속되고 있는 近江(오미)상인이다. 일본이 국운을 걸었던 일청·일러전쟁을 거쳐 조선에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4형제는 명치 38(1905)년 1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론티어를 찾아 조선으로 갔다.(도표2: 창업자 中江 4형제의 사진).

명치 37(1904)년 11월에 정부선이 개통되어 속속 일본인이 이주를 시작한 대구에서 개점하였다. 당시 이미 1500인 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동 40(1907)년에는 2500인으로 급증했다.

당시의 三中井상점은 방물 잡화상이었다. 출신지인 시가현 곤도에서 文政 7(1824)년부터 생가(中井屋)가 계속 사용해 온 ‘井’자 모양의 마크를 상표로 삼았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를 모토로 인기를 끌었다. 이윽고 증가하는 일본인 거주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三中井吳服店으로 바꾸었다. 三中井의 사업은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갔다.

한편 한성에서는 후에 三中井의 라이벌이 되는 가게가 속속 개점·개업하여 그 주위에 커다란 상점가(후에 本町거리 상점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명치 37(1904)년, 일러전쟁을 절호의 기회라고 파악한 2대 小林源六이 三重縣(미에현) 伊勢桑名(이세쿠와나)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남대문거리와 明治町의 모퉁이에 丁子屋양복점을 개점하고, 일본군에 군복을 납입했다.

이어 동 39(1906)년, 초대 조선통감 伊藤博文의 강력한 권유로 三越吳服店이 本町거리 1번지에 ‘경성출장원대기소(京城出張員詰め所)’를 개설했다. “조선통감부 설치에 따른 모든 물자를 납입하라”고 伊藤로부터 의뢰를 받았다(三越社内報 《금자탑》에 의함). 三越도 향후 조선시장의 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 진출은 순식간에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三越是 처음부터 통감부가 보증하는 어용상인으로 출발했다.

같은 39년에 平田知恵人이 三越과 지척거리인 本町거리 1번지에 平田屋荒物店을 창업했다.

또 일본정부는 일러전쟁에 승리한 명치 38(1905)년을 경계로 시작된 조선으로의 이민붐에 편승하여 전국의 상인에게 “일본인이 조선에 진출하여 중국인을 대신하여 상권의 확대를 도모하라”고 선전했다. 조선의 정치·군사·경제의 중심이 된 한성은 종래의 부산을 대신하여 최대의 일본인 인구를 끌어안게 되었다. 그 3할 가까이가 상인이었다고 한다.

(도표3: 일본인의 증가)

2) 경성으로의 진출

三中井은 한성으로 본거지를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일한병합의 다음해인 명치 44(1911)년 3월, 三中井吳服店 본점을 한성에서 개칭된 경성부 本町 1丁目 48번지(현 충무로 1가)에 개설했다. 그곳은 三越의 바로 맞은편으로 平田屋과는 100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았다. 목표는 조선에서 최고의 포목점이 되는 것이었다. (도표4: 三中井吳服店 경성본점의 외관)

급증하는 일본인이 일본상품을 구매했다. 그 중에서도 포목은 최대의 필수품이었다. 남산 지역이나 조선군이 주둔한 용산 지역에는 일본 가옥이 들어서고, 다다미, 가구, 침구, 부엌용품·식

기류, 전기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났다. 또 책상, 의자, 책장, 커튼이나 린넨, 제복, 문방구 등의 납입 의뢰가 총독부, 도청, 부청, 그리고 조선군으로부터 일본인 상인에 쇄도했다.

三中井도 이 비즈니스 기회를 이용하여 사업의 성장·발전으로 연결했다.

2. 성장·발전

대정 말기부터 소화 초기에 걸쳐서(1914~1925년) 일본 국내에서는 백화점 비즈니스가 본격화했다. 그것이 파급되어 조선에서도 본격적인 백화점화가 시작되었다. 三中井도 ‘포목점’에서 ‘백화점’으로 탈피·다각화하여, 소화 10(1935)년대에는 조선 제일의 백화점으로 성장·발전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백화점화가 가장 늦는 등,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1) 늦은 三中井의 백화점화

三越이 도쿄에서 ‘株式會社三越吳服店’에서 ‘株式會社三越’로 개칭한 것은 대정 3(1914)년의 일이다. 도쿄 日本橋의 5층 철조콘크리트건물 신관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백화점으로 출발했다. 경성에서는 바로 그 2년 후인 대정 5(1916)년, 三越은 三中井吳服店 정면에 3층짜리 200평을 증설하여 ‘三越백화점경성출장소’를 개설했다. 조선에서 본격적인 백화점의 효시는 이 三越경성점이다.

개점 첫날 고객수가 3260명이었다. 또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축 피로연에는 총독부 정무총감(통감 다음가는 제2위의 고관)을 비롯하여 명사 500여명이 출석했다. 三越본사에서 野崎사장 등이 조선으로 건너와 접대할 정도로 힘을 쏟은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경성에 진출하고 또 백화점화함으로써 三越은 명실 공히 조선총독부와 경정부 최대의 어용상인이 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가장 프레스티지가 높은 브랜드였다.

丁子屋은 三越에 5년 뒤진 대정 10(1921)년, 株式會社丁子屋百貨店으로 바꾸어 경성에 본점을 두었다. 다음해인 대정 11(1922)년 三中井은 株式會社三中井吳服店으로 개조했지만, 내용은 아직 포목점 그대로였다.

대정 15(1926)년에는 平田屋이 三中井과 같은 本町 1번가에 平田백화점을 개점했다, 목조 2층 건물, 일부는 3층 건물로 연 800평의 크기였다. 창업자인 平田知惠人이 서구시찰 중에 그곳에서 번창하던 할인점을 목도하고, AI 이전에 의한 백화점화를 결단한 것이었다.

이하는 왜 三中井의 백화점화가 三越는 물론이고 丁子屋이나 平田에도 늦었는가에 대한 추론이다.

그 이유는 정보수집의 속도와 정보 분석능력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三中井은 모든 힘을 조선에 쏟아 부었다. 기회를 보는 것에 민첩한 3남 富十郎이 조선에서 포목점비즈니스 확대에 열중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녔던 장남 勝治郎은 시가현 金堂에서 富十郎에 대한 경영지원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는 조직적인 시장조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대정부터 소화 초기(1920~1930년대 초)에 걸쳐 산업자본에 의한 공업화가 진전된 결과, 도시생활자가 급증했다. 예를 들면 소화 5(1930)년에는 전인구의 24%가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도표5 : 인구의 도시집중화).

도시에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상품이 요구되었다. 확대되는 수요가 三越, 高島屋, 大丸, 白木屋, 松屋 등을 자극하여 백화점화가 시대의 커다란 조류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三越, 高島屋, 大丸 등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포목점이 앞을 다투어 백화점으로 전환했다. 오늘날 말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조선에서도 일본 정도는 아니었지만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성의 인구 집중이 현저했다. 당연히 일본 국내의 백화점화의 흐름이 조선에도 전파되었다. 경성의 三越吳服店은 본사의 지령에 따라 일찌감치 백화점화했다. 丁子屋도 백화점화가 시대의 추세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화점으로 전환했다. 사장 小林源六은 당시 유통·소매업의 논객으로 조선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 확실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2) 三中井의 캐치업

三中井도 백화점으로의 길을 가는 것 이외에 앞으로의 성장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三中井은 백화점경영의 경험·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품의 구매나 구비, 진열, 인테리어, 판매기술이나 사원의接客교육, 디자인개발, 백화점의 이미지메이킹 등, 백화점의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경성의 경쟁 상대뿐 아니라 교토나 오사카에서도 高島屋(1919)과 大丸(1920)이 백화점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상점도 벤치마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三越과 丁子屋 그리고 平田도 그렇게 했듯이 三中井도 서구의 백화점을 시찰하고 자신의 눈과 몸으로 백화점 경영의 실재를 배우고, 그 진수를 AI이전하는 길을 선택했다.

대정 13(1924)년, 3대 勝治郎이 미국대륙을 횡단하는 대여행을 감행했다. 勝治郎의 미국여행 중에 3남 富十郎은 경성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지키면서, 勝治郎으로부터 빈번하게 도착하는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백화점비즈니스 전개와 꿈과 플랜을 세웠다. 勝治郎의 귀국 후 三中井은 본격적인 백화점비즈니스로 뛰어 들었다.

소화 4(1929)년 3월에 완성된 ‘三中井吳服店京城本店’의 신·증축은, 이름은 포목점 그대로였지만 勝治郎의 귀국 후 三中井이 본격적으로 백화점화에 뛰어든 커다란 첫걸음이었다. 三越보다 13년, 丁子屋보다 8년, 그리고 平田백화점보다 3년 늦게 三中井은 백화점을 자사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정하고, 열세를 극복하고 조선 제일의 백화점을 지향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소화 8(1933)년 전사원이 바라던 ‘三中井吳服店京城本店’의 신·증축이 끝났다. 지상 6층, 지하 1층의 흰색 근대르네상스식 빌딩이었다. 本町에 면한 구관의 일본식 2층 건물은 3층 건물로, 배후의 5층 건물은 6층으로 증축했다. 그리고 신축된 별개의 6층 건물과 접속시켰다. 신, 구관을 합하여 대지 808평, 연 건평 2504평의 거대한 백화점이었다. (도표 6 : 증·신축 후의 三中井백화점 경성본점).

다른 백화점도 속속 신·증축을 진행하여, 경성의 백화점은 치열한 대형화 경쟁에 돌입했다. 소화 4(1929)년 丁子屋이 본점을 증축하여 연 2200평의 백화점이 되었다. 다음해 5(1930)년에는

三越경성점이 本町거리 입구의 초일등지(현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는 장소)로 신축 이전했다. 대지 734평, 연 2300평의 외관과 내장 모두 극도로 사치스러운 백화점이었다.(그 후 소화 7(1932)년에 2800평으로 증축했다). 소화 7(1932)년에 개점한 조선인이 경영하는 화신백화점도 소화 10(1935)년의 화재 후 2년 남짓하여 신장개업했다. 지상 6층, 지하 1층, 연 2000평의 크기였다.

이렇게 경성에서 5대 백화점이 모두 모였다. (도표 7 : 三中井백화점경성본점을 포함한 경성의 5대 백화점)

三中井은 경성본점 외에 소화 12(1937)년까지 조선 전역에 11개소의 지점망을 확보하고 최대의 백화점이 되었다. 부산, 대구, 진주, 광주, 목포, 군산, 대전, 원산, 함흥, 홍남, 평양의 각 지점이다. 소화 13(1938)년에는 만주 新京에 東亞三中井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新京, 奉天, 하얼빈, 牡丹江에 각각 지점을 두었다.

3. 경쟁

백화점 비즈니스는 호조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경성부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불가결한 존재였다. 5대 백화점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경성은 ‘백화점시대’를 맞이했다.

1) 백화점의 번영

소화에 들어와 일본은 금융공황(1927), 세계공황(1929)에 이어 소화공황에 의한 대불황(1930)을 맞아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불황에 빠졌지만 일본보다 회복은 빨랐다. 그것은 만주국 건국(1932), 일·만·중의 블록화 추진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조선에 보급 기지로서의 공장건설 러시가 계속되어 소화 8(1933)년에 들면 공업생산력이 날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소화 6(1931)년부터 소화 16(1941)년에 걸쳐 조선 전역에 일본 기업에 의해 약 170개의 대공장이 진출했다. 소화 8(1933)년 이후에는 이들 공장이 풀가동되어,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했다(도표 8 : 일본 기업의 대공장의 입지건수).

소화 8(1933)년 12월 17일의 경성일보는 ‘보너스景氣의 백화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三越, 丁子屋, 三中井, 平田의 4대 백화점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매상이 전년보다 5%~15% 상승했다. 백화점들은 연말까지 더한 호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5대 백화점은 화려하게 고객 쟁탈전을 전개했다. 출장판매, 할인상품권 남발, 미끼상품에 의한 손님끌기. 포목의 무료염색·봉제 및 무료 송영, 빈번한 경품추첨판매, 휴일반납, 과잉포장, 야간 연장영업 등을 반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당 경쟁이 눈에 거슬렸던지 소화 13(1938)년에는 백화점위원회가 설치되어 상호 자숙·자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위원회의 멤버를 보면 경성부 상공회의소 會長을 비롯하여 관련 관청의 과장 등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들이 중개역으로서 과당 경쟁의 자숙·자제의 조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인이 주로 지탱한 백화점 비즈니스

이 5대 백화점의 고객층에 관한 기술과 증언이 있다. 일본인뿐 아니라 많은 조선인도 빈번하게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을 이용했다. 백화점 비즈니스에 있어서 오히려 조선인이 중요한 고객층이었다.

三中井의 고객층은 85%~90%가 일본인 중류 셀러리맨이고 일부는 유복한 조선인이었다(中江章浩의 증언 및 三中井의 사내 자료에 의함). 三中井의 <지점장회의의사록>(1931년 5월)에 의하면 앞으로 丁子屋에 대항하여 어떻게 조선인 고객을 증가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丁子屋은 손님의 60%가 조선인이고, 일본인은 40%이었다. 三越에서는 조선인 60%~70%에 대하여 일본인이 30%~40%였다(내부자료에 의함). 화신은 일반적인 조선인, 특히 중류 이하를 고객층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양반계급의 조선인이 일본계 상품을, 일본을 대표하는 三越백화점이라는 브랜드 가치로 포장해서 사는 것을 좋아했다. 가격은 일본국내보다 15%~20% 비쌌지만, 그래도 인기가 좋았다.

趙豐衍은 《조선의 풍속 ~옛날 옛날에~》(尹大辰 역, 南雲堂, 1995)에서 경성시대의 5대백화점의 번성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성시대의 백화점은 서울 종로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화신’과 일본인이 경영하는 ‘三越’ ‘丁子屋’ ‘三中井’, 그리고 ‘平田’의 5개를 들 수 있다.

1대4의 비율에 나타난 힘의 차이뿐 아니라, 일본인이 물론 자본도 풍부했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생긴 것은 1930년에 오픈한 ‘三越’이다. 종로(충무로의 오기-필자) 입구에 새로운 빌딩(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을 지었다. 이곳은 인파로 북적대는 변화가인 명동과 지척지간에 있었다.

三中井은 포목상에서 백화점으로 전신한 백화점이다. 平田은 三中井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비교적 싼 물품을 가져다가 장사를 했다.

이 平田백화점의 특색은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예를 들어 10전짜리 연필 1자루라도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면 집까지 배달해준다는 것이었다.

平田은 근처의 가게보다 싸다고 해서, 비누 1장을 사는 데 전차비 10전을 내고 사러오는 한국인이 많았다.

동아일보(1932년 11월 22일)의 보도에는,

“本町 2번가(1번가의 오기-필자)에 있는 일본인 모 잡화상(平田을 가리킴)은 매일 약 1000원(엔의 오기-필자)어치나 되는 많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할은 조선인이 구매하고 있다. 또 三越 손님의 약 반수 이상이 조선인이라고 한다. ... 하지만 조선인 상점에 일본인이 어느 정도 오는가 하면 고작 5부(5%)에 불과하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인 백화점을 이용하는 동포의 모습에 대하여 한마디하고 있다.

(중략)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온 지 겨우 10년만에 한국인과 일본의 재력에는 한국인 1에 대하여 일본인이 10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 버렸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민중이 자기 나라 상품보다 일본인 상품을 즐겨 사는 경향도 한 몫 했다.

일례를 들면 1924년 12월 선달그믐날 하루의 실적. 일본인이 경영하는 三越吳服店(이 시기는 本町 거리에 있었다 - 필자)은 35000원(엔의 오기-필자) (2엔이 1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 매상의 3

분의 1은 한국인 동포에게 팔았다고 기록에 나온다.

경성의 백화점비즈니스가 융성하고 그 6~7할이 조선인에 의해 지탱되었다는 것을 이 저서로부터도 검증할 수 있다.

신명직 저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현실문화연구, 2003)는 조선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 좋건 나쁘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당시 《조선일보》의 漫文漫畫를 전재해서 재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인이 “백화점 상법에 휘둘리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적이고 야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테마에 맞추어 해석하면, 소화 초기(1920년대 후반) 경성의 조선인 여성에게 백화점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소화 5(1930)년 7월 19일의 《조선일보》 칼럼은 말한다.

“현대의 유행에 물든 경성의 여학생이 1학기 시험이 끝나자 三越이나 丁子屋으로 몰려가 화장품을 사고 있다”. 여학생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할 것을 생각하며 시험을 이겨내었을 테지만, 칼럼을 쓴 이는 “여학생들은 고생하며 학비를 보내주는 고향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기는커녕 자신만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비판적이다. (도표 9 : 三越와 丁子屋에 쇼핑을 하러 몰려가는 여학생들).

소화 8(1933)년 9월22일자 조선일보 칼럼은 최근에 젊은 주부가 자기 도리도 다하지 않고 “살로메같이 낭비로 내닫고 있다. 김치도 담글 줄 모르고, 가정부가 만든 요리를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이들과 같이 백화점 식당을 순례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4. 三中井의 업적

三中井의 업적을 三越과 비교한다. 三中井는 조선·대륙의 백화점왕이라고 불렸다.

三中井백화점의 매상을 三越경성점과 비교하여 양사의 상대적인 역관계를 추론한다.

末永(1997)이 계산한 三中井 각 점포의 소화 5년~동 16(1930~41)년까지의 매상데이터가 있다. 몇몇 점포의 데이터가 빠져 있지만, 대전점과 광주점 등 비교적 소규모 점포의 데이터이므로 三越과 상대비교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三越경성점의 매상데이터가 소화 5(1930)년~동 20(1945)년(상반기)까지 존재한다. 현 三越자료편찬실의 호의로 입수했다. (도표 10 : 三中井 대 三越경성점의 매상 비교).

三中井경성본점의 매상은 소화 10(1935)년~소화 13(1938)년의 평균이 연간 285만엔, 14(1939)년의 데이터는 없지만 소화 15(1940)년에 갑자기 늘어나 경성점이 약 450만엔이다. 대충 소화 16(1941)년 이후를 좀 낮게 잡아 약 460만엔~500만엔으로 추정한다. 三越경성점은 소화 15(1940)년 이후 연간 약 1000만엔의 매상에서 추이하고 있다.

三越경성점은 매년 三中井경성본점의 약 2배 이상의 매상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三越경성점은 점포의 크기(매장면적일 것이다)가 비슷했던 三越삿포로점보다 3~4배 가깝게 매상을 올렸다. 三越경성점의 매상은 개인 고객의 매상 외에 거대한 外商매상, 즉 관청이나 군을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으로의 일괄납입매상이 포함되어 있다. 명문을 선호하는 관청, 군, 대기업에 三越브랜드는 절대적인 신용이고, 조선인 부유층의 三越선호도 일본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 매우 강했던 것이다.

三中井의 매상은 경성본점만으로는 三越경성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 조선의 13점포를 합하면 경성점 1곳뿐인 三越을 넘어 조선 최대의 매상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든 三中井이 하나가 되어 三越경성점 하나에 도전할 정도로 三越의 브랜드 이퀴티(브랜드 자산)는 강했고 三中井가 용감하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최강의 라이벌이었다.

三越경성점은 당시에 이미 전체 三越그룹 중에서 최우등생이었지만, 특히 소화 19년~동 20(1944~1945)년에 걸쳐서 모든 지점 중에서 최고가 되어 日本橋지점에 이어 제2위에 랭크되었다.

이렇게 三中井은 조선·만주·중국을 모두 합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그룹 중에서 최대의 매상규모를 올렸다. 그 때문에 ‘조선·대륙의 백화점왕’이라고 불렸지만, 브랜드의 격이나 프레스티지의 점에서는 三越에 뒤처졌다.

Ⅲ.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

1.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를 정의한다.

경성의 백화점비즈니스를 지탱한 당시 조선의 사회기반,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사정을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찾아내고자 한다. 이 사회기반을 조선의 백화점·소매업마케팅의 인프라스트럭처(이하 인프라)라고 부르기로 한다.

1) 조선의 인프라

조선의 백화점비즈니스의 발전기와 전성기는 앞서 보았듯이, 소화 원(1926)년부터 동 15(1940)년에 걸친 10년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소화 16(1941)년 이후는 태평양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백화점비즈니스도 전시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물자부족으로 유통(주로 백화점 등의 소매업)이 규제·통제되어 종래와 같은 자유로운 장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어느 백화점이나 사업의 존속을 피하기 위하여 더욱 관·군의 어용상인화가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당시의 조선의 ‘인프라’이다. 이 시기 백화점·소매업(특히 5대백화점)은 경성에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 토대로서 조선, 특히 경성에 백화점 비즈니스를 지탱한 확고한 ‘인프라’로서의 대중소비사회가 성립되어 있었다. 백화점·소매업뿐 아니라 소비재인 상품을 제공하는 제조업에 있어서도 매스 마케팅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인프라=대중소비사회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검증한다.

당시 조선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4대 백화점과 조선인이 경영하는 하나의 백화점(합쳐서 경성의 5대 백화점) 및 그것의 지점망이 비즈니스로서 성립했고, 게다가 매우 순조로웠다. 이 순조

로운 ‘성립’은 당시 조선의 인프라의 ‘양상’에 좌우되었음에 틀림없다. ‘양상’이란 결국 일본과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의 차이와 공통성과 차이성인 것이다.

그 시기 조선의 인프라는 일본의 그것과 공통성이 많았다. 그리고 일본의 인프라의 발전정도가 높고 또한 일본의 백화점경영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더욱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경영시스템은 거의 그대로 조선으로 이전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을 SAL이전의 프레임에서 ‘표준화이전’이라고 한다.

4대 백화점은 일본인에 의해 일본적으로 경영되었다. 그리고 화신도 경영자는 조선인이었지만 경영 기술이나 노하우, 그리고 백화점마케팅의 내용도 실체는 일본적으로 경영되었다(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일본의 백화점시스템이 표준화 이전되어 조선에 정착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과 조선은 백화점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영력, 기술력, 자금력에 역력한 차가 있어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이전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조선의 인프라를 ‘사회·정신문화’와 ‘경제·물질문화’로 나누어 생각한다.

‘사회·정신문화’라 함은 정치·법률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등의 사회시스템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국가와의 관계성을 규율하고 있는 도덕이나 가치관 등의 문화시스템을 가리킨다.

‘경제·물질문화’라 함은 경제나 과학기술의 발전정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조·생산하는 기술력과 국민에게 축적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이나 능력을 말한다. 경제력은 인간·물자·자본·정보와 과학기술을 조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나 상인이 실천하는 마케팅활동을 말한다. 결국 백화점사업도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전된 경제·물질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의 ‘사회·정신문화’와 ‘경제·물질문화’는 조선사회 고유의 역사배경과 가치관의 토대 위에 일본이 들여온 정치·경제·문화·사회의 구조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조선 특유의 것으로 변용되어 나갔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이 일본인의 가치관이나 법률·도덕이라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공유함으로써 일본인의 구매동기, 구매행동, 라이프스타일을 자신들의 것으로서 받아드린 것이다. 흔쾌히 그렇게 했는지, 싫으면서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갈리고 있지만, 사실로서는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로서 나타났다. 이것을 조선의 ‘대중소비사회화’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인 적응화’란 조선인이 문화융합·동화(Assimilation)하여 ‘일본인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명치 이후 ‘일본인성’을 지키면서 ‘근대화=서구인 적응화’한, 다시 말하면 문화변용·적응(Acculturation)한 경위를 바탕으로 한 아날로지 개념이다. 조선인은 ‘조선인성’을 지켜가면서 ‘일본인 적응화’함으로써 ‘근대화’되어 갔다는 말이다.

2) 아날로지 : 조선의 일본 적응화,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

일본의 경영·마케팅 이전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원래 평화시의, 그것도 서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간의 자주적인 이전을 전제로 구축된 것이다. 마케팅이라는 기업활동, 더욱이 그것의 국제이전은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만 유효하게 국경을 넘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과 조선에 필자의 이전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반대로 저항도 불가능한 상태로 일본 적응화가 진행되었고, 조선인은 일본인 적응화함으로써 비로소 평온한 생존의 길이 열려 있었다.

오해를 무릅쓰고 굳이 아날로지를 찾아 표현한다면, 소화 15년간은 특히나 급속하게 조선이 일본 적응화하고, 조선인이 일본인 적응화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지배민족이 그러하듯이 조선에서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재현하려고 했다. 백화점은 일본인이 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상품을 제공하는 장소로, 일본제 및 조선에 있는 일본기업이 만든 조선제 일본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4대 백화점을 지탱한 것은 일본인 고객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조선인도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즐기고 유지하기 위해 4대 백화점에서 일본상품을 구매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이 일본의 ‘사회·정신문화’와 ‘경제·물질문화’를 생활문화 속에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당시 경성에 ‘일본의 마케팅문화가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인만이 아니라 이들 조선인도 경성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일본적 대중소비사회’를 지탱한 소비자(생활자)였다. 자신의 생활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의지와 경제 합리성에 따라 구매하는(다시 말하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현대인 소비자였다.

당시 경성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및 한국인을 상대로 平成 14(2002)년에 필자가 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하여간 일본인은 공무원, 회사원, 군인 등 부자가 많았다. 내지(일본 국내)보다도 훨씬 유복했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또 조선인도 “양반은 보통 일본사람보다 훨씬 유복했고, 조선인 관리, 회사원, 기술자 등도 일본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소화 10(1935)년 전후의 경성에서는 백화점 지하의 식료품매장(마켓이라고 불리고 있었다)에는 연일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이들 유복한 일본인과 조선인 도시생활자가 5대 백화점의 충추적인 고객층이었다. 단 이 풍요로움은 소화 14(1939)년부터 동 15(1940)년 정도까지가 피크로,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동시에 물자의 결핍, 인플레이 등의 생활고가 조선에도 밀려 왔다.

2. 경성부의 일본 적응화를 검증한다.

1) 서울 안에서 경성을 찾아낸다

거리의 풍경과 공기를 일본화한다. 즉 일본의 도시에 있는 것과 같은 빌딩이 세워지고,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상점가가 있으며, 모든 간판이나 포스터가 일본어이다. 특히 당시 경성부의 중심부는 일본 국내에 있는 도시의 모습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 경성의 중심부를 재현해 보자.

도표 11의 사진은 일본 적응화한 경성의 중심부를 보여준다. 일한병합 직후에는 조선가옥 밖에 없던 시내의 대부분이 일본 가옥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도표 11 : 경성 중심부의 사진)

이 두 장의 사진은 1930년대의 사진이다. 가장 안쪽의 건물이 조선총독부인데, 북악산 기슭에 거대한 새가 두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통치의 중추였다. 그 전방에 묵직한

듯 중후한 건물은 경성의 에피센터라고 할 만한 경성부청이다.

경성부의 중심부는 총독부, 경성제대, 경성역, 조선신궁의 4점을 연결하는 변형 장방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경성부청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랜드마크는 일본의 공적 심벌로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성은 일본의 도시’임을 보여주는 광고탑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방형의 안쪽 부분이 일본인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판매하는 상점가인데, 그곳에 가면 언제나 최신의 일본(도쿄나 교토, 오사카의 유행품 등)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丁子屋, 明治座, 동양척식, 三井, 三越, 조선은행을 연결하는 사각형의 안쪽이 가장 일본화한 상점가였던 것이다.(도표 12: 경성부 중심 약도)

현재 서울 시내에 경성시대의 일본을 전해주는 건축물은 그것이라고 알지 못하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졌다. 더욱이 예전에 랜드마크였던 건물들의 주위에는 몇 십층의 고층건물이 줄지어 서서 현재 서울의 심벌이 되어 있다. 결국 예전의 일본 건물은 한국의 풍경 속에 묻혀버려서 예전의 경성은 서울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필자의 수중에 수제 지도가 있다. 경성의 중심부, 일한병합의 훨씬 이전부터 일본인 상점가였던 本町 1번가부터 3번가를 포커스한 것이다. 경성의 선린상업 제13회 졸업생인 竹崎達男가 소화 12~13(1937~38)년경의 해당지구를 재현한 것인데, 竹崎와 동창인 關美晴(소화 18년졸. 현재 오사카부 거주)의 호의로 입수했다. (도표 13 : 경성 本町 주요부).

도표 12는 경성의 주요부분의 약도인데,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확대한 것이 도표 13이다. 2개의 도표에 기입되어 있는 숫자는 사진번호로 ①에서 ④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4대 백화점을 표시하고, 그 외의 주요 건조물의 위치는 ⑤~⑩으로 표시하여 각각의 사진을 같은 번호로 첨부했다(부록).

먼저 三井백화점(사진①)부터 시작하자. 사진①은 소화 8년(1933)의 신축·증축 후의 本町 거리 쪽에서 본 三井백화점 경성본점의 일러스트이다. 부지는 本町거리 1번가(현 충무로 1가)와 소화거리(현 퇴계로)에 둘러싸인 열쇠모양의 지형으로, 일러스트의 건물도 열쇠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三井의 地番은 本町 1번가 44,45,46으로, 가게를 확장할 때마다 인근 토지를 매입했음을 알 수 있다. 本町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3층 건물 부분이 포목점 시절의 일본식 2층 건물에 신축한 것이다.

三井 앞에서 조금 비켜난 곳에 자리한 건물(카네보 전시홀)이 소화 5(1930)년에 本町로터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三越경성점이 있던 자리다.

三井에서 왼쪽으로 100미터정도 가면 本町거리 1번가 51번지에 平田백화점(사진②. 현대연각홀). 本町 입구를 나와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 접한 三越백화점(사진③. 현 신세계백화점 본점), 로터리에서 남대문거리를 따라 북쪽을 향한 곳에 丁子屋(사진④. 현 롯데백화점 별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이 경영하던 4대 백화점이 4방 200미터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도쿄 신주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5대 백화점(伊勢丹, 三越, 高島屋, 小田急, 京王)의 경

쟁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조선인이 경영하던 화신백화점은 本町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종로에 있었다. (사진⑤).

당시의 本町거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진이 있다. 사진⑥-1은 三越 경성점에서 本町거리의 입구를 촬영한 것인데, 어느 겨울날 조선인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좌측에 조금 보이는 것이 경성중앙우편국이다.

本町거리는 폭 3.8미터에서 6미터로, 아스팔트·아스콘으로 포장했지만 이 사진에서는 도로가 동결되어 있다(현재는 충무로가 되어 그 폭도 당시의 1.5배 정도 확장되었고, 서울 최대의 변화가인 명동의 일부가 되어 있다).

2) 경성의 상점가와 그 集客力

중심은 本町거리 1~2번가로, 상점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다. 소화 11년(1936) 8월에 경성부가 실시한 《경성부상점가조사》에 따르면(그 일부를 본 논문에 《부록》으로 첨부했다). 당시의 상점 487개 중(本町 1~5번가까지의 합계)에서 449개(92%)가 일본인이 경영했다. 本町거리는 거의 완전하게 일본화한 상점가였다고 할 수 있다. 상점수뿐 아니라 출입 인구의 측면에서도 경성 최대의 상점가였다. 사진⑥-2는 사람들로 붐비는 여름날을 촬영한 것이고, 사진 ⑥-3은 밤의 本町거리이다. 촬영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비가 내린 후의 밤의 本町거리가 분명한데, 주변의 건물로 봐서 平田백화점이라고 추측되는 건물의 조명이 비가 내린 후의 本町거리의 물웅덩이를 비추고 있다.

상점의 개업 연도 데이터도 위의 백화점조사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다. 本町 상점가는 명치 말부터 일본인 상점가로 성장했는데, 절반 가까운 상점이 소화 초년(1926)까지 개업하고 있다. 나아가 소화 7(1932)년의 만주국 건국을 경계로 하여 신규 개업이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에 전체의 거의 4할이 개업했다. 그 결과 한층 충실한 상점가가 형성되었다.

조선이, 그리고 특히 경성이 만주의 병참기지가 되어, 경제력을 회복하고 소비도 활발해져 상점가가 호황을 누리게 하는 순환이 생겨난 것이 상점수의 급증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三越, 三中井, 丁子屋이 차차 대형화하여 집객력을 높이고, 그것의 파급효과로서 경성부뿐만 아니라 인접한 인천이나 수원, 개성 등에서도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本町거리 상점가에 물건을 사러 오게 된 것이다.

本町 1~2번가(도표12의 A)가 일본인 거리였던 데 비해 종로 1~3번가(도표12의 B)는 조선인 거리로서 붐볐다.

本町에는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역사적 경위로 봐서도 일본인이 많이 살았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모든 상점이 일본인이 경영하는 것이었다. 고객층은 부내 및 인접 지역의 일본인과 중류 이상의 조선인이었다.

종로 1~3번가에는 합계 542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2개(93%)가 조선인이 경영했다. 쇼핑객도 부내 및 인접 지역의 조선인이 많고 일본인은 적었다. 그 주변에는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서(사진⑥), 조선인의 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이 지켜졌다.

이들 상점은 소화 10년간에 전체 상점의 80%가 개업했고, 특히 소화 6(1931)년 이후의 5년간

347개(전체 상점의 64%에 해당함)가 집중적으로 개점했다. 조선인의 소매업도 만주국 건국으로 인한 조선 경제의 호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또 조선인의 상업에 대한 의식도 종래의 ‘장사는 천하다’에서 ‘우리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일본인 못지않게 돈을 벌어들이자’로 변했다.

조선인 쇼핑객이 本町의 상점가나 三越, 丁子屋, 三井에 가지 않고도 사고 싶은 물건을 종로에서 살수 있도록 상점가를 정비한 것이다. 물론 독특한 조선 상품을 파는 가게도 들어섰다.

그리고 소화 7(1932)년 화신백화점이 개업하여 조선인의 집객력을 비약적으로 높인 것도 플러스로 작용했다. 종로는 경성 제2의 상점가로서 本町에 대항했다. 이들 상점을 개업한 조선인들의 상당수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지방 양반의 차남이나 3남이었다.

종로거리는 도로폭이 27미터 30센티(2~6번가)나 되어, 중앙에는 복선 전차 궤도가 깔려 있었다. 양측에는 本町보다 조금 넓은 4미터 50센티에서 5미터 50센티의 보도가 있었다. 차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보도는 아스팔트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백화점 이외의 주요 랜드마크를 도표 12 경성중심부 약도에서 확인한다.

조선총독부청(사진⑦, 1996년에 완전 해체됨), 경성부청(사진⑧, 현 서울시청), 조선은행(사진⑨, 현 한국은행), 조선신궁(사진⑩, 그 자리에 현 남산식물원), 경성역(사진⑪, 현 서울역), 明治座(사진⑫, 현 현대투자신탁증권), 경성중앙우편국(사진⑬, 그 자리에 현 서울중앙우체국), 동양척식 경성지점(사진⑭, 현 외환은행본점), 경성제대(사진⑮) 등이다.

도표 12의 아래 부분이 남산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일본인 고급관료나 셀러리맨, 유복한 상점주인들의 호화로운 저택이 연이어 있었다. 또 경성에 본사·지점을 둔 대기업의 사택도 많았다. 남산 1~3번가, 旭町 1~3번가가 지구명이다. 도표 11의 사진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와 건물이 이러한 일본 가옥이다.

남산 중턱의 광대한 대지에 官弊大社 조선신궁의 많은 건물들이 鎮座해 있었다. 祭神은 天照大神과 명치천황이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남대문을 기점으로 한 긴 參拜道を 걸어 하염없이 돌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성의 중심부, 특히 4대 백화점 주변은 일본화했는데, 그곳은 일본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조선인에게도 매력적인 상점가였다. 종로는 주로 조선인이 애용하는 상점가로 발전했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4대 백화점과 조선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은 그 주위에 형성된 상점가와 함께, 단지 경성부민 60만 명(주변 합병후)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여 경성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인근의 인천(21만 명), 개성(7만 6천 명) 등지까지 합하여 120만 명의 상권을 갖고 있었다. 숫자로 말하자면 현재의 교토시에 필적하는 인구다. 그리고 그 인구의 대부분이 비교적 유복한 사람들이었다.

3.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를 검증한다.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인 적응화했다.

1) 일본어교육과 문화변용

소화 10(1935)년 이후 조선인은 고령자와 취학 전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일본어교육을 받아 일본어를 비교적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

경성부에는 일본어 능력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남아 있다. (도표 14 : 조선인의 일본어 능력).

그에 따르면 일본어를 이해하는(조금 안다와 보통 회화가 가능하다는 합침) 사람 수는 소화 5(1930)년의 약 8만 명에서 소화 15(1940)년에는 거의 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성부내의 어린이와 고령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조선인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가 “나의 이 추정에 오류는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손정목(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 낮에는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 일본어로 말하며 일본의 통치에 협력하는 척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조선인으로 돌아와 조선어를 사용하고 현금이나 기타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결코 진심으로 일본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선인의 급속한 일본어 능력 향상은 소화 13(1938)년 4월부터 실시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內鮮共學에 힘입은 바가 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하면 조선 전역에서 소화 15(1940)년에 약 130만 명, 소화 17(1942)년에는 약 19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다. (도표 15 : 조선의 생도·학생수)

조선인 인구 2200만 명에서 보면 그다지 높은 취학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아졌다. 그들은 귀중한 교육엘리트였다. 그밖에도 일본 국내에 2만 4천 명의 조선인이 유학하고 있었다. 수준 높은 일본에서 중학 이상의 중·고등교육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오면 한층 유리한 취직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는 일본어로 진행되는 교육에 반발을 하거나 마음속에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조선인은 일본어로 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손정목은 ‘적극적’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기쁘게 일본인화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조선인은 일본의 선진 교육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독립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경제용어, 학술용어, 과학기술용어를 모두 일본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1919년의 독립운동이 무산된 후, 무력이 아니라 知力으로 무장하여 일본에 대항하려는 기운이 고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일본어에 의한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한 교원의 반수 가까이가 조선인이었다. 소화 17(1942)년 시점에서 조선의 교원수(대학을 포함) 23000명 중에 약 11000명이 조선인이었다. 그들 또한 적극적으로 일본어에 의한 內鮮共學 교육에 종사하는 엘리트였다. 물론 조선인의 교원수는 많았지만, 교장 등 지도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은 적었다.(도표 16 : 조선의 교원수)

2) 일본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그런데 당시의 경성에는 손정목이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저항자’로서의 조선인도 있었지만, 반면에 일본의 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려 생활을 즐기는 ‘소비자=생활자’로서의 조선인이 매우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양자가 다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동일인물이었는지는 알 방도가 없다.

앞에 거론한 신명직의 전계서로부터 당시의 모습을 더듬어보자.

소화 3(1928)년 2월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경성의 젊은이도 도쿄의 젊은이와 같이 ‘모보(모던 보이), 모가(모던 걸)’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로이드안경, 긴 구레나룻, 키톤 모자, 카우보이의 나팔바지 등을 입고 경성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쓰러져가는 주위의 조선가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은 외국인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칼럼을 쓴 사람은 야유를 퍼붓고 있다(도표 17-1 : 모보들).

소화 5(1930)년 7월의 《조선일보》에도 젊은 조선인 남녀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인 젊은이의 ‘긴부라(銀ぶら)’를 모방해서 ‘혼부라 =本町을 어슬렁거리는 것- 필자’를 하면서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에 모여 있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스커피’가 유행하고 있는데, 남녀가 이마가 맞닿을 정도로 붙어서 같은 컵에서 빨대로 ‘사랑의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 칼럼을 쓴 사람은 조선인이 일본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도표 17 -2: 사랑의 아이스커피).

조선인 특히 조선인 중학생들의 일본인 적응화가 진전되었음을 예증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하자.

三中井백화점 경성점의 소화거리 쪽 한편에 三中井이 경영하는 문화영화극장이 있었다. 백화점 1층에 설치되어 있었다. 2층 이상은 매장이다(도표 6 아래쪽 사진을 참조).

이 극장은 뉴스영화와 만화영화가 전문이었는데, 입장료도 싸서 중학생이나 전문학교의 학생이 자주 출입했다. 용산중학, 경성중학, 선린상업 등의 학생(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선호하는 장소였다.

소화 14~16(1939~41)년 무렵에 중학생이었던 몇몇 일본인과 조선인은 “일본군의 진격이나 승리를 전하는 장면이 스크린에 비추지면 일본인, 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큰 박수가 터져나와 극장 안은 난리였다”고 필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조선인 청소년의 ‘마음’이 일본인 청소년의 그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했다는 말일 것이다.

일본어 능력을 가진 이들 조선인이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성, 평양, 부산 같은 도시로 이동했다. 그들은 진출한 일본기업의 사원으로, 대공장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었다. 그 수는 적게 어림잡아도 20만 명에 가깝다. 또 상점경영을 시작한 자도 많아서, 경성에서는 특히 종로지구엔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밀집했다. 이러한 일본어 세대는 일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드려, 경성의 5대 백화점에게 커다란 고객층이 되었다. 수적으로는 일본인의 몇 배나 되며, 커다란 구매력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 경성에서 5대 백화점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좋은 실적을 올린 요인으로서는, 고작 십 수만 명 정도의 일본인 고객뿐만 아니라(소화 10년~ 동 15년 사이 경성의 일본인

인구) 대다수의 조선인도 그에 못지않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는 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조선의 사회기반의 일본 적응화와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라는 관점에서조차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절에서 화신을 예를 들어, 조선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인 화신도 조선의 대중소비사회화,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라는 배경이 있어서 비로소 비즈니스가 가능했다는 점을 검증한다.

4. 화신백화점의 도전.

일본의 경영·마케팅을 AI이전함으로써 강한 경쟁력을 가진 백화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많은 일본인 전문가가 협력했다.

1) 기업가 박흥식에 의한 AI이전의 검증

기업이 자사에 없는 경영이나 마케팅의 기술, 노하우를 타사나 타국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채용·모방(Adopt and Imitate), 나아가 응용·혁신하는(Adapt and Innovate)하고, 마침내 숙달·창조(Adept and Invent)하여 자사의 독자적인 경영·마케팅시스템을 완성한다. 이와 같은 경영모드를 ‘AI이전’이라고 한다.

조선인 박흥식이 창업한 화신백화점에서 그러한 AI이전의 여러 모습을 아래에서 정리한다.

박흥식은 <화신·박흥식회상록> 《재계회고》(한국일보 편, 1982년)에서 “화신백화점은 일본의 백화점비즈니스에서 배우면서 조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올린 민족적 승리다”라는 의미의 술회를 하고 있다. 일본에게 배웠지만 어디까지나 조선인의 자주성을 가지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백화점은 일본인의 백화점에 지지 않았다, 그래서 민족적 승리다. 이것이 그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

화신은 경영자 박흥식이 스스로 위험 부담을 안고, 조선인의 자본으로 조선인의 손에 의해 만든 백화점이다. 조선인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기도 했다. 식민지 하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구의 백화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일본의 백화점에게서 배우고 수많은 일본기업(메이커나 도매상)의 협력을 얻어 일본 백화점의 경영시스템을 자발적으로 AI이전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하나의 이유로 필자는 본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선의 대중소비사회,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일본인 라이프스타일의 수용이라는 인프라의 형성이 여건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적응화한 백화점에 대한 조선인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박흥식이 백화점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이유를 모두 조선의 인프라의 일본 적응화라는 환경 덕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라는 여건 속에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화한 그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AI이전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 자유의사로 전략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액션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의 판단력, 선견지명,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뛰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경영·마케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일본·일본인으로부터 조선·조선인에게 이전되기 위해

서는 ①일본의 ‘경제·물질문화’, 즉 제조기술이나 경영·마케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조선의 그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을 것, ②일본과 조선의 ‘사회·정신문화’의 공통성이 클 것, ③조선인이 일본의 ‘사회·정신문화’를 수용하고 있을 것 등, 이 3가지 환경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조선에서 일본인의 백화점경영이 성공했고, 일본상품에 대한 조선인 소비자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 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창조 능력이 박홍식에게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AI이전에 의한 백화점비즈니스의 창조라는 화신의 경영모드는 일본 패전하고 한국이 독립한 후에도 화신 자신을 비롯하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그들이 전후 본격적으로 백화점을 개점할 때 구미의 백화점이 아닌, 일본의 三越, 高島屋, 伊勢丹, 大丸 등에서 상품의 종류나 조달, 점포 내의 인테리어, 여성 점원의接客태도에 이르기까지 경영·마케팅의 내용을 철저하게 AI이전하고 있다.

이것은 상기한 ①②③의 환경조건이 전후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백화점 업계는 ①②③의 환경조건이 한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일본으로부터의 AI이전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한국인 소비자도 그 경영·마케팅의 성과인 일본적 백화점의 상품 종류나 서비스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물론 백화점 자신이 ‘이 경영·마케팅은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공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밝은 일부 한국인을 제외하고 시정의 소비자는 ‘日本發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각은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화하여 말하면 한국인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숨긴’ 일본의 경영·마케팅을 매우 좋아하고 현재도 좋아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 일본으로부터의 경영마케팅의 이전 모드가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백화점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기업제휴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어 있다.

2) 변영의 비밀 : 화신백화점의 개업과 일본인의 참가

박홍식이 화신백화점을 종로 2가의 모퉁이에 개점한 것은 소화 7(1932)년이다. 동서의 두 건물을 육교로 연결했다. 그때까지 백화점경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에서 종업원 교육, 상품 조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및 많은 일본기업에 협력을 구했다,

일본인을 임원으로 초빙하고, 그 네트워크로 판매책임자 등 일본인 전문가를 고용했다. 또 조달처인 일본기업으로의 가교역할도 일본인이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박홍식 자신도 일본으로 건너가 백화점을 자세히 시찰하고 비즈니스 방법을 배웠다.

상품 공급은 鐘淵紡績의 津田사장, 대일본제당의 藤山사장, 明治製菓의 相馬사장, 味の素의 鈴木사장, 日清製粉의 正田사장 등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사장과 직접 만나 거래 계약을 맺었다. 최초의 자금 융자는 조선식산은행(은행장 有賀光豊)이 했다.

박홍식은 당시 이미 백화점의 전신인 화신상회, 조선 최초의 발런터리 체인 스토어 경영을 하는 화신연쇄점, 鮮一紙物, 대동홍업 등의 경영자로서 성공을 거둬하고 있었다. 조선인 중에서 드문 사업가였고, 경성상공회의소의 유력 멤버이기도 했다.

그런 화신이 소화 10(1935)년 1월에 화재로 서관 전부와 동관 3,4층이 소실되었다. 종로상점가

최대의 건물이고, 경성의 조선인에게서는 자부심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성을 뒤흔드는 대사건이었다. 순식간에 수만명의 조선인 군중이 모여 종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헌병대가 동원되어 비상경계를 했다. 주위에는 거의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화신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은 경성의 어디에서도 볼 수 있어 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화신은 화재 6일후에 동관 옆에 있던 구 종로경찰서 건물을 빌려 백화점을 재개했다. 조선인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부터도 갈채를 받았다.

화신은 바로 복구에 착수했다. 총독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宇垣 총독의 지시로 조선식산은행이 복구자금을 융자했다. 앞서 설명한 일본기업들이 화신의 재건에 협력한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2년 후인 소화 12(1937)년 11월에 크림색 근대 르네상스양식으로 지상 7층, 지하 1층, 연 2000평의 백화점을 신축 개점했다. 매장 면적은 三越경성점보다 넓고,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에스컬레이터는 2층까지 설치되었다. 신축한 화신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조선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소화 13~14(1938~39)년경의 화신의 매장 배치를 보면, 몇몇 독특한 조선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본제, 또는 일본기업제의 상품이 팔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장 구성이나 상품 구성에서 三越이나 三井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과 공통성이 매우 컸다. (도표 18 : 백화점의 매장 구성과 상품 종류)

소화 17(1942)년의 화신의 임원과 간부(부장) 리스트에 몇 명의 일본인 이름이 올라 있다. 전무인 和田新平(전 조선총독부), 같은 전무인 三谷俊博(전 조선은행 및 東一銀行), 그리고 영업부장인 前田孝吉(전 三越본점)은 제일선에서 지휘를 하면서 박홍식을 보좌하고 있었다. 도쿄출장소장 熊谷孝平, 오사카구매부장 片桐幹吉의 이름도 보인다. 감사역에는 당시 경성상공회의소 회장인 賀田直治와 그 밖에 몇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일본인이 화신에서 일하고, 화신에 협력하여 화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5. 조선의 경제력

1) 상공업의 발전과 풍부한 개인소득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조선사회의 인프라가 일본 적응화하고 조선인이 일본인 적응화했다는 필자의 ‘문화변용가설=조선 특히 경성의 대중소비사회화’가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인프라의 정비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총독부의 정책이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정책의 내용을 상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지만 조선, 그 중에서도 경성의 상업발전 프로세스만 봐도, 일본과 조선을 차별하지 않는 ‘一視同仁’ 정책과, 조선인을 일본인과 같이 황국신민화하는 ‘내선일체’ 정책이 조선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다.

경성의 상공업은 총독부와 경성부의 후원을 받아 순조롭게 발전했다. 소화 11(1936)년 연초에 경성상공회의소 회장 賀田直治는 <경성상공업변영의 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賀田은 “부민 45만 명의 경성부는 2500만 명을 가진 반도의 수도로서 정치, 군사, 교육, 상공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한층 더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개의 발전 사례를 들고 있다.

부내의 도로정비나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빌딩가의 육성 등, 경성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기업의 업적은 더욱 향상되고 있고, 내지기업의 경성지점과 경성공장도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내외의 관광객이 경성을 방문하고, 기차나 자동차의 교통기관은 풀가동되고 있다. 여관, 요정, 선물가게는 불경기를 모른다.

이와 같이 조선경제는 합병 후 25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올랐다. 그것에 호응할 것처럼 조선 전역뿐 아니라 내지에서도 인제가 경성에 계속 모이고 있다.

앞으로의 경성은 만주와 일본 내지를 연결하는 조선의 중심으로서 한층 발전하여 도쿄, 오사카에 이어 제3의 국제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을 위해 상공업자의 분발을 기대한다.

賀田直治가 말하는 “불황을 모르는 경성”은 소화 8(1933)년경에 시작되었다. 그 앞 수년간은 소화 2(1927)년부터 연쇄적으로 시작된 금융공황, 세계대공황, 소화공황의 폭풍이 조선에도 불어닥쳐, 소화 5(1930)년부터 7(1932)년에 걸쳐 조선경제는 소화 원년(=大正 15년, 1926년)의 70~80%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도표 19 : 조선의 국내 총생산)

소화 6(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건국, 日滿中 블록의 형성 등을 계기로 조선은 만주로의 병참기지로 자리매김되었다. 소화 7(1932)년부터 일본의 대기업을 경성, 인천, 평양 등지에 168개의 공장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그 중에서도 경성과 인천 두 지역에 66개의 공장이 가동되었다. 그 결과,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조선의 경제력이 순식간에 회복되어, 소화 10(1935)년에는 소화 원(1926)년의 수준을 넘어섰다.

회사와 공장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수입도 늘었다. 평균해서 말하면 일본인을 100으로 잡았을 때 조선인의 수입은 약 반 정도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직무내용이 같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 근로자의 구매력이 백화점과 상점을 기를지게 했던 것이다. (도표 20 -1 : 공장근로자의 연간수입)

또 경제의 호황은 도시의 빌딩과 가옥의 건설 붐을 가져왔다. 職人の 수요가 증가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인 職人の 일급을 100으로 잡았을 때 조선인은 70 ~80% 수준이었다. 職人の 숙련도는 전체적으로 일본인의 수준이 높았다고 추측되므로 양자의 수입 격차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직종은 석공, 미장이, 기와공, 목수, 건구 직인, 짐꾼, 노가다 등이었다. 그들도 백화점이나 상점가의 소중한 고객층이었다. (도표 20-2 : 기술자의 일당)

그리고 관리의 수입도 늘었다. 총독부에만 약 86000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각 도, 각 부의 행정기관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어쨌든 부자였다”고 한다. 그들 가정(특히 부인들)이 三越이나 三井의 외부판매에 좋은 단골이었다. (도표 20-3 : 관리의 연간급여)

2) 조선의 인구증가를 지탱한 식량사정

조선의 경제력, 그리고 비교적 윤택한 식량사정이 26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렸다.

조선의 인구는 일한병합 36년 사이에 1300만에서 약 2600만으로 거의 2배 증가했다. 그 사이 일본국내에 약 200만, 만주에 약 100만 명이 이주했다고 한다. (도표21 : 조선의 인구증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같은 시기에 17만에서 75만으로 약 58만 명 증가했다. 경성부에는 전체 일본인의 2할에 가까운 17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중심부에는 인구 100명 중 40명 정도가 일본인이었다.

이 거대한 인구의 식생활을 지탱한 것이 농산물이다. 곡류 생산량과 소비량의 데이터 중에서 미곡을 대표로 고찰해 보자.

쌀 생산량의 피크는 소화 12(1937)년으로 약 2680만석이다. 일본·만주로의 이출·수출분을 제외하면 1인당 소비량은 연간 0.5679석이다. 쌀 1석으로 성인 한명이 1년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므로, 쌀만 본다면 소화 12년의 피크 때에도 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쌀소비량이 가장 낮은 때는 소화 2~11(1927~1936)년의 10년간으로, 연 0.4석~0.5석이다. 최고는 소화 13(1938)년에서 소화 19(1944)년까지로, 연 0.6석~0.7석이다. (도표 22-1 : 조선 쌀의 생산량, 1인당 소비량)

보리, 밀, 쌀보리 등을 합하면 1200만석~1500만석의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미곡과 합하면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도표 22-2 : 조선에서의 주요 곡물 1인당 소비량).

현실의 식탁에서는 일본인은 거의 매일 쌀밥을 먹고 면류도 자주 먹었다. 조선인도 부유층(양반, 관리, 대기업 사원 등 도시생활자)은 쌀밥과 면류가 중심이었다. 빈곤층 조선인은 쌀밥은 거의 먹지 못하고 면류를 비롯하여 잡곡이나 감자, 고구마 중심의 식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IV. 맺음말

전후 한국인에 의한 일본으로부터의 경영·마케팅기술의 AI이전의 원류

원류 : 三中井은 소멸했지만 三中井이나 三越이 조선에서 일구어둔 ‘백화점 경영·마케팅의 기술과 노하우’의 터전은 전후 한국인에게 계승되었다. 거기에다가 전후 일본의 새로운 백화점 경영·마케팅기술이 또 AI이전되었다. 현재 한국의 백화점비즈니스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다음에 든다.

1. 소화 54년(1979) 롯데백화점의 개업은 高島屋이,
 2. 소화 57년(1982) 신세계백화점의 신장개업은 三越이,
 3. 소화 59년(1984) 현대백화점의 개업은 大丸이,
- 각각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실현되었다.

또 백화점 이외의 일본의 경영·마케팅 이전은 헬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필자가 직접 각 기업에 확인한 것 및 문헌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를 들겠다.

4. 일본기업이 그 브랜드의 사용권을 한국측 파트너에게 제공. 무대 뒤에서 마케팅·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야쿠르트(1971), 후지 필름(1974), 린나이(1974), 폴라(1986), 포카리스웨트(1987) 등. 연도는 한국측 파트너와 제휴 개시 연도를 나타낸다.

5. 일본기업에 의한 자주적 마케팅 전개를 하고 있는 경우.

마일드세븐라이트(1989), 엡슨(1996), 資生堂(1997), 소니(1999), JVC(1999), 렉서스(2001), 혼다(2003) 등. 연도는 각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한 해를 나타낸다.

6. 일본기업의 제품전략(기술과 컨셉트)의 이전. 한국기업에 의한 자사 브랜드화의 경우

자동차, 가전, 시계, 카메라, 맥주, 화장품, 세제, 샴푸 등의 가정용품, 가공식품 등의 분야에서 무수히 존재한다. 또 일본기업의 제품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은 분야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일본기업의 제품전략을 한국기업이 자주적으로 AI이전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들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후 한국기업이 일본의 경영·마케팅 기술과 노하우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1)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점, (2) 일본과 한국의 '사회·정신문화'와 '경제·물질문화'의 공통성이 큰 점, (3) 한국인이 일본의 '사회·정신문화'와 '경제·물질문화'를 식민지시대에 내재화한 점 등 3개의 환경조건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AI이전하는 한국측의 열의와 노력, SAL이전하는 일본측의 커미트먼트와 협력이 맞물리지 않으면 이전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상기 1에서 6까지의 성공사례는 전후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 3개의 환경조건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이전의 원류의 하나가 당시 조선에서 三中井이나 三越 등의 번영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著書·論文

- 梶山季之(1963) 『李朝殘影』 文藝春秋新社
- 金·韓·崔·權·車(1971)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
- 趙·李·劉·金(1971) 『日帝下의 民族生活史』 民衆書館
- 孫禎睦(1977) 『朝鮮時代 都市社會研究』 一志社
- 松田伊三雄(1972) 「私の履歷書」 『日本經濟新聞社』
- 韓國日報 편·발행(1981) 「和信·朴興植回想錄」 『財界回顧』
- 孫禎睦(1982)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 孫禎睦(1982)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研究』 一志社
- 小倉榮一郎(1988) 『近江商人の經營』 サンブライト出版
- 木村健二(1989)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 小倉榮一郎(1990) 『近江商人の系譜』 社會思想社
- 安岡重明·藤田貞一郎·石川健次郎 편저 『近江商人の經營遺産～その再評價～』 同文館 (1992)
- 藤本英夫(1994) 『泉靖一傳』 平凡社
- 趙豐衍(尹大辰 역)(1995) 『韓國の風俗～いまは昔から』 南雲堂
- 孫禎睦(1996) 『日帝強占期都市化過程研究』 一志社
- 林廣茂(1996) 『等身大の韓國人・等身大の日本人～日韓での消費者分析の現場から～』 タケハヤ出版
- 末永國紀(1997) 『近代近江商人經營史論』 有斐閣
- 黑田勝弘(1999) 『韓國人の歷史觀』 文藝春秋
- 孫禎睦(1999) 「서울 50년사-18」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鄭雲鉉(武井一 역)(1999) 『ソウルに刻まれた日本～69年の事跡を歩く～』 桐書房
- 林廣茂(1999) 『國境を越えるマーケティングの移轉～日本のマーケティング移轉理論構築の試み～』 同文館
- 末永國紀(2000) 『近江商人』 中央公論新社
- 高橋宗司(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 鄭大均(2002) 『韓國ナショナリズムの不幸』 小學館
- 林廣茂(2002) 「自國發ブランドの海外への移轉研究」 『ブランド・マネジメント研究(1)理論編』 法政大學産業情報センター
- 신명직(2003) 『모던뽀이, 京城을 거닐다: 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

2. 統計·데이터資料

- 朝鮮總督府 편·발행(1926~1935, 194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京城日報社 발행(1930,1933) 『京城日報』 1930年2月6日號, 1933年12月17日
- 京城府 편·발행(1931~1941) 『京城府勢一斑』,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桐木重吉 편(1933) 『經濟座談會』 京城商工會議所,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朝鮮總督府 편·발행(1934~1935) 『朝鮮統計要覽』,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朝鮮總督府 편·발행(1934~1944) 『朝鮮事情』,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朝鮮總督府 편·발행(1936~193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高麗書林(復刻版)
- 賀田直治(1936) 『京城商工業繁榮の道』 京城商工會議所,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京城府 편·발행(1936) 『京城府商店街調査』 京城商工會議所,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百貨店新聞社 편·발행(1939) 『昭和14年版日本百貨店總覽』
- 臺灣總督府 편·방행(1941~1942) 『臺灣現住人口統計』,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朝鮮總督府 편·발행(1942) 『朝鮮의 農業』,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百貨店新聞社 저·발행(1942) 『昭和17年版日本百貨店總覽』
- 京城商工會議所 편·발행(1943~1944) 『經濟月報』 (昭和18年12月號, 昭和19年1月號, 同年2月號),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大邱府 저·발행(1943) 『大邱府史』
- 京城府 편·발행(1982) 『京城府史』 (第1卷~第3卷) 湘南堂(復刻版)

3. 寫眞集

- 權五騎 편(1978)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1876~1878)』 東亞日報社
- 每日新聞社 편·발행(1978) 『日本植民地史1 朝鮮』
- 李圭憲(1996)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上)』 서문당
- 서울특별시청 편·발행(2002) 『일제 침략 아래서의 서울 (1910-1945)』 (사진으로 보는 서울 2)

4. 社史·町史 등

- 丁子屋商店 편·발행(1936) 『丁子屋小史』 非賣品
- 藤田善三郎 「日本最初の百貨店」 (1951~1958) 『金字塔』 (三越社内報), 三越總務部 所藏
- 「三越のあゆみ」 編集委員會(1954) 『三越のあゆみ』 三越,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大丸250年史編集委員會(1967) 『大丸250年史』 大丸,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高島屋150年史編纂委員會 편(1982) 『高島屋150年史』 高島屋,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 株式會社三越 편·발행(1990) 『株式會社三越85年の記録』, 三越總務部 所藏
- 五箇莊町史編纂委員會(1994) 『五箇莊町史』 第3卷, 近江商人博物館 所藏

5. 三中井関連資料·回顧錄

- 中江勝治郎(1924) 『渡米日記』手書きノート
 三中井 편(1926~1931) 『支店長會議議事録』社内資料, 近江商人博物館 所藏
 (株)三中井吳服店 발행(1929) 『三中井吳服店御案内』小冊子, 滋賀大學圖書館 所藏
 三中井 편(1932~1934) 『諸事記(1)』社内資料, 近江商人博物館 所藏
 大空社 편・발행(1934) 「中江勝治郎」 『戰前財界人名大辭典』大空社, (復刻版, 1993)
 大空社 편・발행(1934) 「小林源六」 『戰前財界人名大辭典』大空社, (復刻版, 1993)
 大橋平衛 편(1935) 『鮮滿と三中井』(株)三中井, 同志社大學人文科學研究所 所藏
 阿部薰 편(1935) 「中江勝治郎氏」 『朝鮮功勞者銘鑑』民衆持論社, 서울市立大學圖書館 所藏
 (주)三中井 편(1937) 『憲則』社内版、滋賀大學圖書館 所藏
 (주)三中井 편(1938) 『三中井要覽』社内版、滋賀大學圖書館所藏
 森善一(1989) 『後代に残す自叙傳』私家版
 三中井會 편(1992) 『三中井會名簿』(第13回)1992年10月18日(日)
 三宅鐵雄(1996) 『私の幸福な八十八年』私家版
 坂口昇(2000) 『回想八十年』私家版
 編・發行不明
 「三中井」「和信」「丁子屋」「三越」 『朝鮮産業の決戰再編成』(發行年, 發行所不明), 서울市立大學圖書館所藏
 「三中井」「和信」「丁子屋」「三越」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發行年, 發行所不明), 서울市立大學圖書館 所藏

6. 一般歷史書

- 中村哲(1992) 『日本の歴史①6 明治維新』集英社
 佐々木克(1992) 『日本の歴史①7 日本近代の出發』集英社
 海野福壽(1992) 『日本の歴史①8 日清・日露戰爭』集英社
 武田晴人(1992) 『日本の歴史①9 帝國主義と民本主義』集英社

〈그림 1〉 조선의 三中井本支店 소재 지도



出所：三中井編・發行(1935) 《鮮滿と三中井》

〈그림 2〉 創業者四兄弟



1914年, 오른쪽부터 富士郎(37歲), 勝治郎(42歲), 久次郎(39歲), 準五郎(28歲), 中江壽美所藏

〈그림 3〉 日本人居住者數의 增加 (1876~1910)

	朝鮮全土	漢城 (京城)	釜山	仁川	元山
明治 9 年(1876)	82		82		
明治13年(1880)			2,066		235
明治18年(1885)		89	1,896	562	235
明治23年(1890)	(91)9,021	523	4,344	1,616	680
明治28年(1895)	12,303	1,839	4,953	4,148	1,362
明治33年(1900)	15,829	2,115	6,067	4,215	1,578
明治38年(1905)	42,460	7,677	13,364	12,711	3,150
明治39年(1906)		11,724	15,989	12,937	5,120
明治40年(1907)		14,829	18,481	11,467	4,162
明治41年(1908)		21,789	21,292	11,283	4,055
明治42年(1909)		28,788	21,697	10,907	4,069
明治43年(1910)	171,543	43,106* (34,468)	21,928	13,315	4,696

(*)1910年년에 합병한 龍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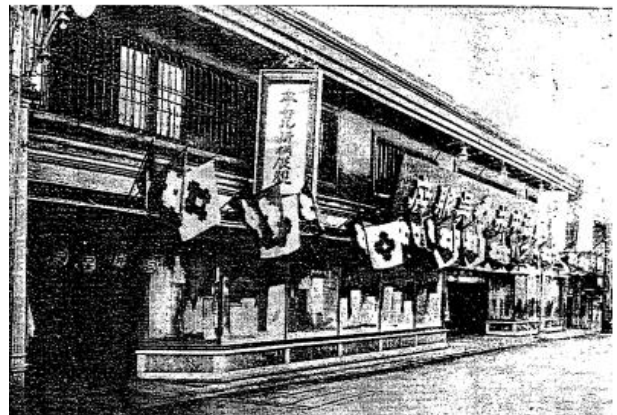
출전 : 孫禎睦(1982) 《韓國開港期都市变化過程研究》 一志社.

〈그림 4-1〉 三中井吳服店京城本店 (撮影時不明)



출전 : 九州大學圖書館所藏

〈그림 4-2〉 本町 거리의 三中井吳服店



출전 : 三中井編・發行(1929) 《三中井吳服店御案内》

〈그림 5〉 都市로의 人口集中 (%) (總人口比)

	1920年	1930年	1940年
日本	18.0%	24.0%	34.7%
朝鮮	3.4%	5.6%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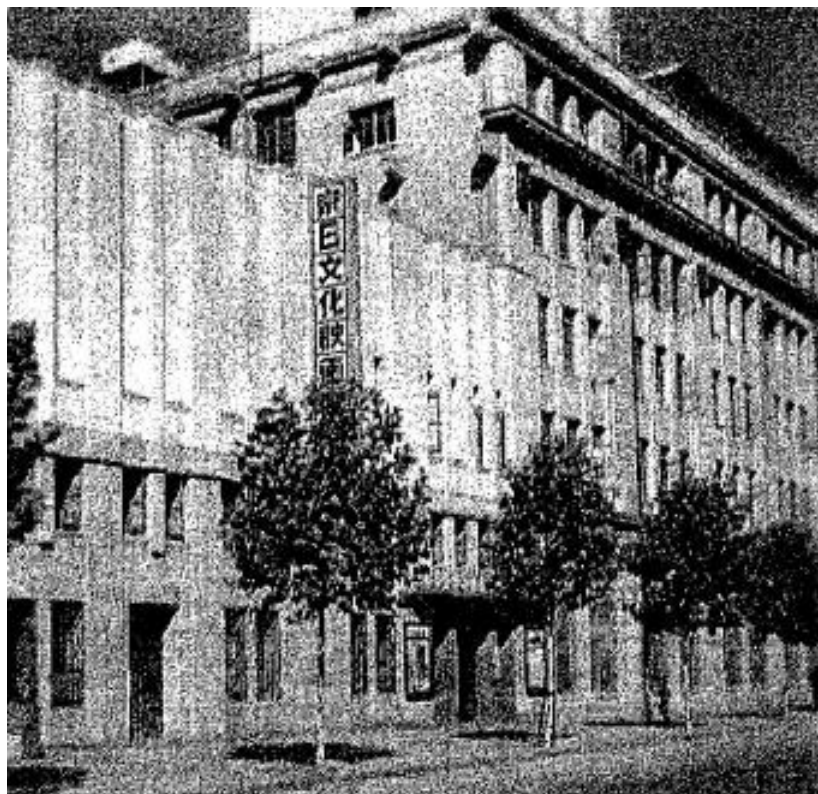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 1942) 。《朝鮮國勢調查報告》 (1935) 。滋賀大學圖書館所藏

〈그림 6-1〉 三中井百貨店京城本店(1933年新築後) 本町거리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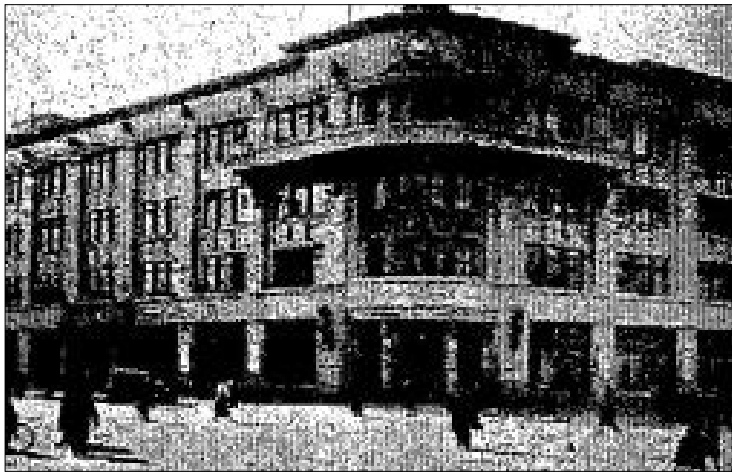
출전 : 權五琦(1978) 《寫眞으로 본 建國百年(1876~)》 東亞日報社

〈그림 6-2〉 : 三中井百貨店京城本店(1933年新築後) 昭和거리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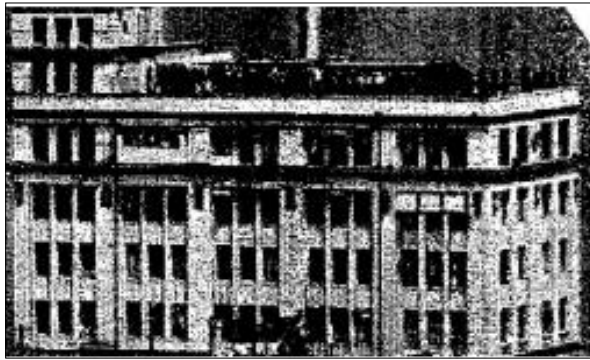


출전 : 中江壽美所藏, 撮影年不明

〈그림 7〉 京城의 五大百貨店



三越百貨店



三中井百貨店



和信百貨店



平田百貨店



丁子屋百貨店

〈그림 8〉 日本企業에 의한 大工場의 立地件數 (昭和6年~16年)

京城과 그 주변	36
仁川과 그 주변	30
平壤・鎭南浦과 그 주변	21
釜山과 그 주변	13
기타	68
	168

출전 : 孫禎睦(1996) 《日帝强占期都市化過程研究》 一志社。

〈그림 9〉 三越나 丁子屋로 장보러가는 여학생들



출전 :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그림 10〉 三中井 對 三越京城店 (單位 : 千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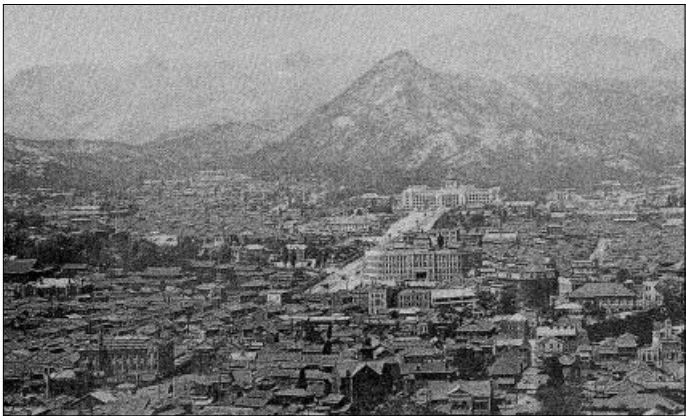
	三中井全朝鮮	三中井 (京城)	三越 (京城)
昭和 5年	3,177	1,587	2,380
6年	3,160	1,383	3,287
7年	2,354	1,239	3,386
8年	3,003	1,055	—
9年	4,107	1,500	3,795
10年	5,693	2,384	4,109
11年	6,706	2,768	4,744
12年	7,374	2,856	5,751
13年	7,759	2,958	7,190
14年	8,032	(推) 3,000	8,917
15年	10,772	4,564	9,563
16年	—	—	10,003
17年	—	—	10,705
18年	—	—	11,148
19年	—	—	10,179
20年	—	—	6,813 (上期のみ)

출전 : 末永(1997), 三越資料編纂室(2003), 三中井의 賣上은 一部推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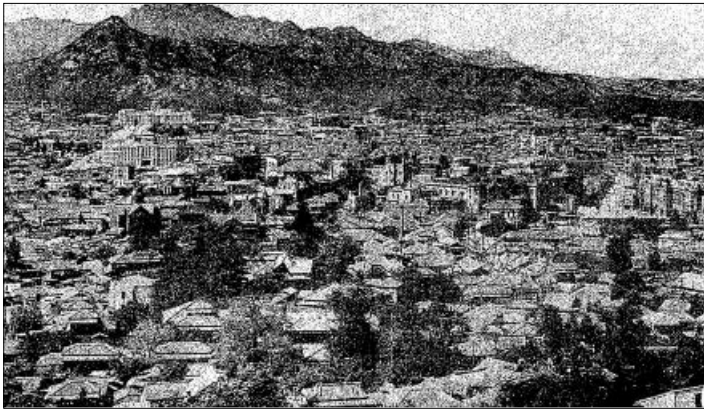
(*)以下の 13店 年別賣上 總計：京城, 釜山, 平壤, 咸興, 元山, 群山, 大田, 光州, 興南, 晋州, 清津. 몇 개
가게의 賣上이 欠落됨 (×표로 나타냄)。

	京城	釜山	平壤	大邱	咸興	元山	群山	木浦	大田	光州	興南	晋州	清津
昭和5年	○	○	×	×	○	○	○	○	×	×	×	×	×
6年	○	○	○	○	○	○	○	○	×	×	×	×	×
7年	○	○	×	○	×	×	○	○	×	×	×	×	×
8年	○	○	○	○	○	○	○	○	○	×	○	○	×
9年	○	○	○	○	○	○	○	○	○	○	○	×	×
10年	○	○	○	○	○	×	○	○	○	○	○	×	×
11年	○	○	○	○	○	○	○	○	○	○	○	×	○
12年	○	○	○	○	○	○	○	○	○	○	○	×	○
13年	○	○	○	○	○	○	○	○	○	○	○	×	○
14年	×	×	○	○	○	○	○	○	○	○	○	×	○
15年	○	○	○	○	○	○	○	○	○	×	○	×	○

〈그림 11-1〉京城中心部 (1930年代) 北岳山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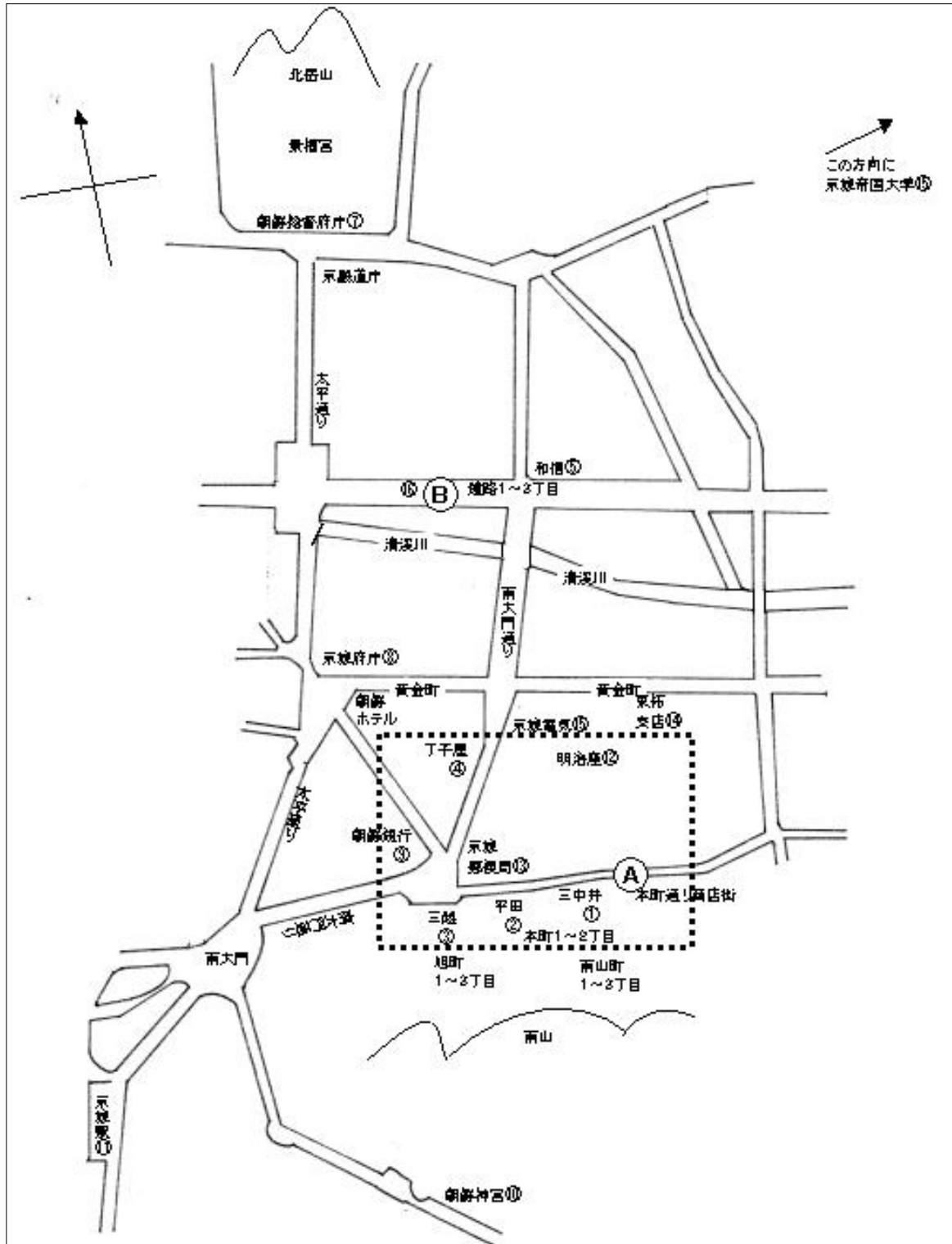


〈그림 11-2〉日本家屋으로 가득 매워진 中心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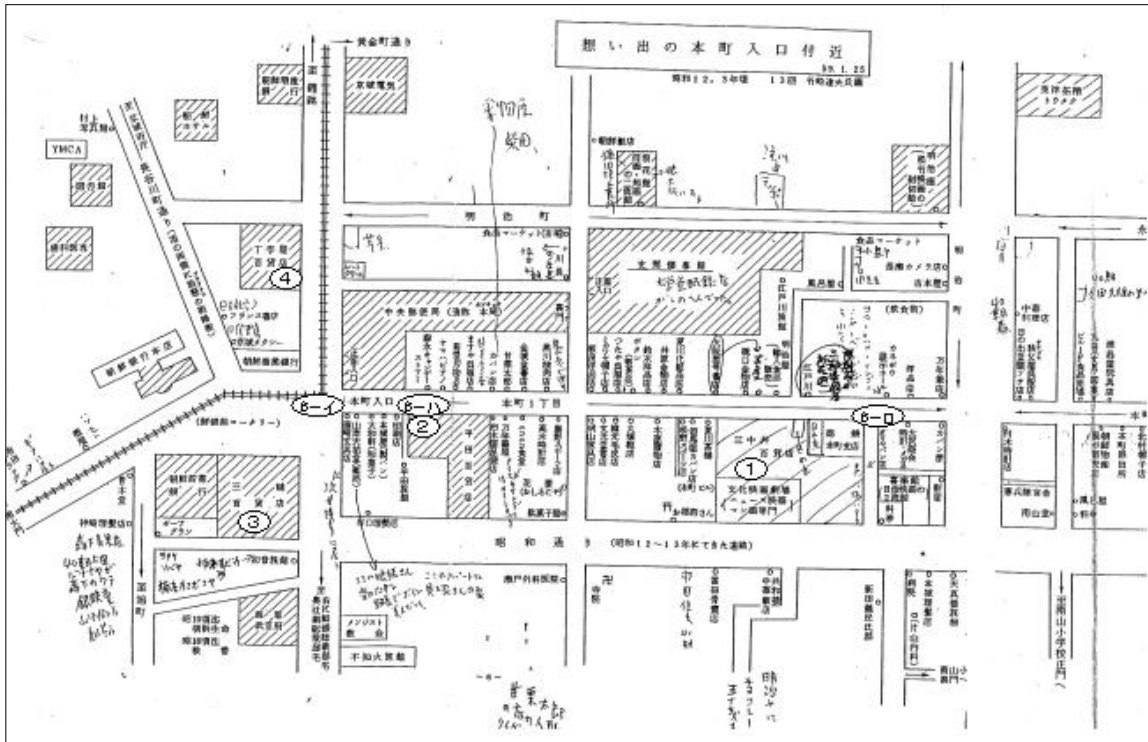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 (2002)《일제 침략 하의 서울
(1910~1945)》

〈그림 12〉 京城中心部略図



출전 : 京城府 (1924) 《京城府勢一斑》(滋賀大學図書館 所藏)을 바탕으로 作成

〈그림 13〉 京城本町主要部



〈그림 14〉 朝鮮人の日本語能力(単位:人)(京城)

	昭和5年(1930)	昭和10年 (1935)	昭和15年 (1940)
やや解し得る	24,562	39,748	73,978
普通會話ができる	55,057	92,322	220,275
	79,619	132,080	294,253

출전: 京城府《京城府勢一斑》(各年版) 滋賀大學図書館 所藏。

〈그림 15〉 조선의 생도·학생수

	昭和15年 (1940)			昭和17年 (1942)		
	合 計	内地人	朝鮮人	合 計	内地人	朝鮮人
初等學校 ⁽¹⁾	1,323,804	(92,666) ⁽³⁾	(1,231,138) ⁽³⁾	1,975,314	98,832	1,876,455
中學校 ⁽²⁾	85,317	29,707 +α	47,119 +β	118,587	37,121	74,782
高等專門學校	5,456	2,046	3,410	6,662	2,738	3,906
師範學校	6,691	2,281	4,410	8,370	2,137	6,233
京城帝大	634	384	250	789	424	365
同 予科	541	336	205	643	442	201

(1) 昭和17년의 초등학교 생도수는 관립, 공립(1부, 2부) 국민학교, 사립인정 학교, 공립간이학교의 생도를 포함.

(2) 昭和15년의 사립중학교 (13개교) 의 생도수849명 가운데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명세는 알 수 없다.

(3) 昭和14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

생도·학생수는 이밖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 유학생이 24,000명 있었다 (昭和18년) .

大學·高等專門學校6,771명

中等學校 9,106명

高等予備校 8,231명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報) 滋賀大學図書館 소장.

〈그림 16〉 조선의 교원수

	학교수	합계	일본인	조선인
初等學校 (公立)	2,851	18,002 (3)	8,600	9,402
中學校(1)	211	3,515 (3)	3,515 (3)	819
高等專門學校(2)	18	610	312 (3)	280
師範學校	10	303	255	48
京城帝大	1	599	410	189
同 予科	1	49	43	6
		23,078	12,293	10,744

(1) 공립·사립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포함.

(2) 관립, 공립, 사립의 전문학교

(3)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중국인 등 외국인 교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출전 : 朝鮮總督府編·發行《朝鮮事情》 (1942)滋賀大學図書館 소장.

〈그림 17-1〉 모던 보이



〈그림 17-2〉 사랑의 아이스커피



출전 : 신명직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2003)

〈그림 18〉 백화점의 매장 구성과 상품 종류

	三井井成점(소화 8년)	三越井成점(소화12~13년)	화신(소화13~14)
구관	부엌용품, 마켓(생선식료품) 외관, 지방부	지하 지하식당, 분재, 10錢 균일 완구, 생화, 아동복, 양품잡화, 양말, 신발, 식료품, 부엌용품, 잡화, 도기, 칠기, 세일물건	지하 식료품, 조미료, 일·양·조선 식기 등
1층 2층	화장품, 방물, 부인복, 아동복, 내의, 잡화, 신발, 문방구, 운동기구, 서적, 완구, 과자, 일본술, 양주, 통조림, 조미료, 건어물, 조림, 김치, 해산물, 교통공사, 영화관	여행사, 상품권, 약품, 毛絲, 머리장식품, 신발, 袋物, 화장품, 담배, 술, 과자, 음료수, 차, 가즈오부시, 김, 식료품, 조선선물용품	약품, 화장품, 부인용품, 신사용품 등
		미용실, 완구, 기모노류, 기성복, 기모노 관련 잡화, 실크, 결혼복, 방석, 상단실	안경, 시계, 귀금속, 사진기, 서양 잡화 등
3층	京都기모노, 關東기모노, 허리띠, 면포, 서양원단, 기모노 관련 잡화	귀빈실, 사교실, 남성양복, 아기용품, 부인복 원단, 학용품, 문방구, 도서, 남성용품, 서양가구, 운동기구	신혼도구, 미싱, 내복 등
4층	신사복, 외관 신사복, 양품잡화, 이불	대식당, 시계, 귀금속, 사진기, 도기, 칠기, 전기가스, 악기, 가구, 용단	특매장, 문방구, 사무용품, 서적 등
5층	가구, 도기, 서양그릇, 철물, 전기기구, 가스기구, 미술, 거실장식품	전망대, 사원휴게실	조선물산, 고려자기, 화신식당
6층	귀금속, 카메라, 시계, 악기, 선물용품, 기모노 전시장, 직영식당(대식당)		가구, 전기기구, 선풍기 등
7층			미용실, 금붕어, 새, 원예부 등

출전 : 졸저 《幻の三中井百貨店》에서 발췌.

〈그림 19〉 조선의 국내 총생산

	實質値 (昭和元年=100)				名目値 (昭和元年=100)		
	金額(百万円)	指數	1人当 (円)		金額(百万円)	指數	1人当 (円)
昭和元年 (1926)	1,745	100.0	91.35		1,745	100.00	91.36
昭和2年 (1927)	1,748	100.2	91.41		1,840	105.40	96.17
昭和3年 (1928)	1,650	94.5	86.00		1,813	103.70	94.49
昭和4年 (1929)	1,614	92.5	83.52		1,814	103.90	93.84
昭和5年 (1930)	1,447	82.9	71.44		1,903	109.10	94.00
昭和6年 (1931)	1,254	71.8	61.87		1,990	114.00	98.19
昭和7年 (1932)	1,433	82.1	64.77		2,471	141.55	119.95
昭和8年 (1933)	1,579	90.5	75.97		2,256	129.29	108.53
昭和9年 (1934)	1,749	100.2	82.58		2,573	147.35	121.88
昭和10年 (1935)	1,975	113.2	90.22		2,600	148.90	118.80

출전 : 趙·李·劉·金(1971)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민중서관, 378~379쪽, 380~381쪽.

〈그림 20-1〉 공장 노동자의 연간 수입 (단위 : 엔)

								比較指數		
		日本人	増加指數	朝鮮人	増加指數	中國人	増加指數	日本人	朝鮮人	中國人
昭和10年	(1935)	538	(100)	259	(100)	238	(100)	100	48	44
昭和11年	(1936)	580	(108)	279	(108)	257	(108)	100	48	44
昭和12年	(1937)	697	(130)	335	(129)	308	(129)	100	48	44
昭和13年	(1938)	763	(142)	367	(142)	337	(142)	100	48	44

출전 : 趙・李・劉・金(1971)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민중서관, 475~478쪽.

〈그림 20-2〉 職人の 일당 (단위 : 엔 / 일) (昭和15年 : 朝鮮平均)

	日本人	朝鮮人	指數 (日本人=100)
石工	4.54	3.15	69
左官	4.24	3.07	72
燒瓦積	4.20	3.19	76
大工	3.90	2.92	75
指切職	3.76	2.87	80
建具職	3.73	2.66	71
トビ人足	3.32	2.65	80
仲士	2.78	1.88	68
土方	2.59	2.04	79
平人足	2.18	1.32	60
漁夫	2.17	1.32	70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滋賀大學図書館 소장.

〈그림 20-3〉 관리의 연간 급여 (단위 : 円) (昭和15年)

國費 (조선총독부 관리)				道費 (도청의 관리)		
總數	85,918人	1人當給与		人數省略	1人當給与	
日本人	49,907人	1,051	(100)			
朝鮮人	36,002人	543	(52)			
勅任官	121人					
日本人	113人	6,152	(100)		6,587	
朝鮮人	8人	4,519	(73)			
奏任官	1,862人					
日本人	1,541人	3,048	(100)		3,217	(100)
朝鮮人	321人	1,887	(62)		2,081	(65)
判任官	20,111人					
日本人	15,865人	1,312	(100)		1,580	(100)
朝鮮人	4,246人	758	(58)		941	(60)
雇員	39,336人					
日本人	18,515人	734	(100)		678	(100)
朝鮮人	20,821人	464	(63)		455	(67)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滋賀大學図書館 소장.

〈그림 21〉 조선의 인구증가

		全朝鮮 (千人: 사사오입)		京城 (千人: 사사오입)	
		總人口	內日本人人口	總人口	內日本人人口
明治43年	(1910)	13,313	172	279	38
大正4年	(1915)	16,278	321	241	63
大正9年	(1920)	17,289	349	250	66
大正14年	(1925)	19,016	425	303	78
昭和元年(大15)	(1926)	19,104	442	306	82
昭和5年	(1930)	20,257	502	355	98
昭和6年	(1931)	20,263	515	365	100
昭和7年	(1932)	20,600	523	375	105
昭和8年	(1933)	20,791	543	382	107
昭和9年	(1934)	21,126	561	395	110
昭和10年	(1935)	21,891	583	404	113
昭和11年	(1936)	22,048	609	339	127
昭和12年	(1937)	22,355	630	357	131
昭和13年	(1938)	22,634	633	373	134
昭和14年	(1939)	22,800	650	393	138
昭和15年	(1940)	23,709	690	(*) 931	151
昭和16年	(1941)	24,704	717	975	155
昭和17年	(1942)	25,608	753	1,114	167
昭和18年	(1943)	*	*	*	*
昭和19年(推定)	(1944)	25,858	710	989	159

(주)(*) 경성은 실제로는昭和11년(1936)에 주변을 속속 흡수 합병하여 인구가 불었지만, 국세조사는昭和10년과昭和15년,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15년에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昭和10년부터 15년에 걸쳐 경성의 인구는 대략 60만 명~80만 명이라고 한다.昭和18년의 데이터는 불명,昭和19년의 인구는 5월 1일 현재의 추산치.

출전: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年報》(各年該当版) 滋賀大學図書館 소장 他.

〈그림 22-1〉 조선미 생산고, 輸·移出高 및 1인당 소비량의 변화

		生産高(千石)	指數	輸·移出高(千石)	指數	1인당 消費量(石)	指數
大正1~5年	(1912~1916) 平均	12,304	100	1,310	100	0.7188	100
大正6~10年	(1917~1921) 平均	14,101	115	2,443	186	0.6860	95
大正11~15年	(1922~1926) 平均	14,501	118	4,376	334	0.5871	82
昭和2~6年	(1927~1931) 平均	15,798	128	6,617	505	0.4964	69
昭和7~11年	(1932~1936) 平均	17,002	138	8,736	667	0.4017	56
昭和12年	(1937)	19,411	196	7,202	550	0.5679	79
昭和13年	(1938)	26,797	218	10,997	839	0.7031	98
昭和14年	(1939)	24,139	196	6,894	526	0.7761	108
昭和15年	(1940)	14,355	117	601	46	0.6108	85
昭和19年	(1944)	18,919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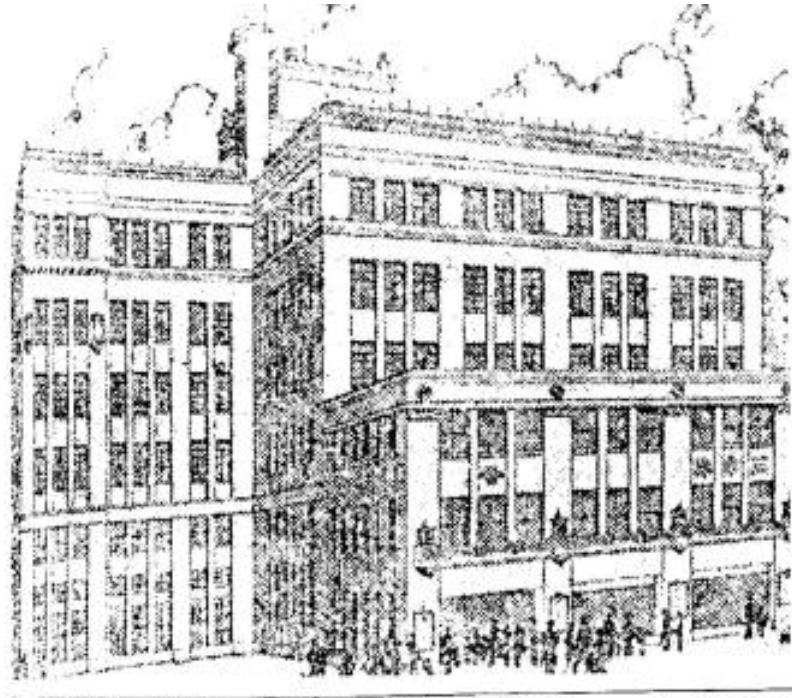
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1942)《朝鮮の農業》 滋賀大學図書館 소장 他.

〈그림 22-2〉 조선의 주요 곡물 1인당 소비량의 변화 (단위 : 석)

	米穀	粟	大麥	小麥	大豆
明治1年~大正5年 (1911~1916) 平均	0.719	0.271	0.323	0.112	0.182
大正6~10年 (1917~1921) 平均	0.686	0.323	0.439	0.110	0.183
大正11~15年 (1922~1926) 平均	0.587	0.364	0.409	0.128	0.177
昭和2~6年 (1927~1931) 平均	0.476	0.356	0.388	0.115	0.156
昭和7~8年 (1932~1933) 平均	0.412	0.311	0.426	0.095	0.140

출전 : 朝鮮總督府農林局(1934)《朝鮮米穀要覽》 滋賀大學圖書館 소장.

사진 ① 三中井百貨店京城本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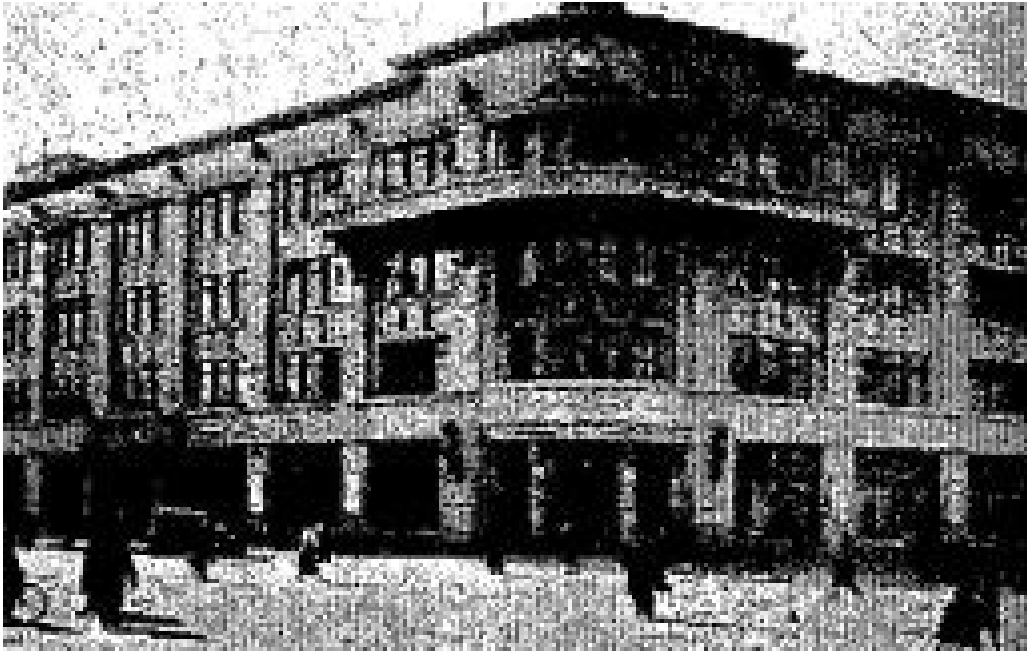
출전 : 權五琦 편 (1978) 前掲書

사진② 平田屋百貨店



출전 : 百貨店新聞社 편・발행 (1939)前掲書

사진③ 三越百貨店京城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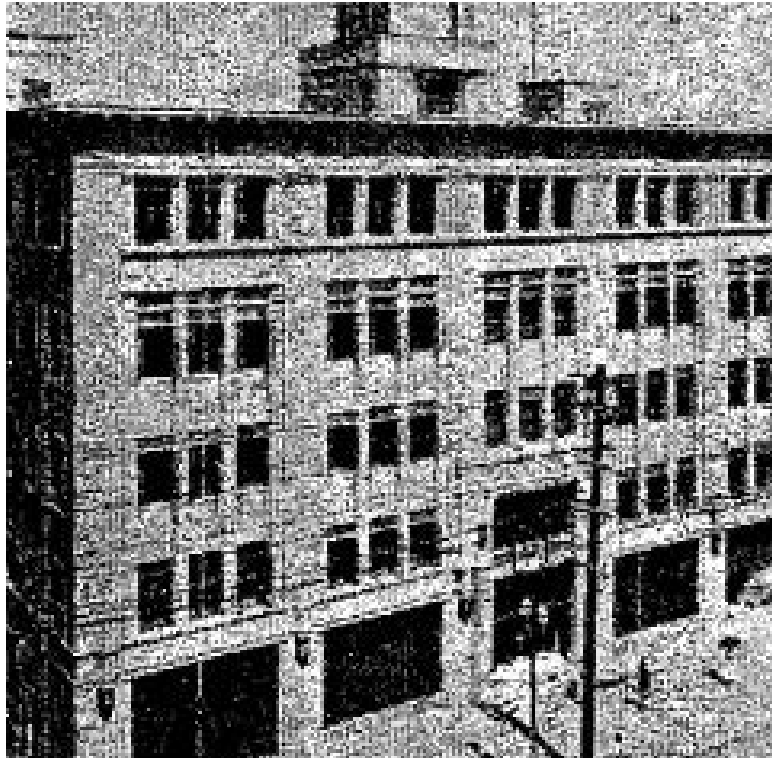
출전 : 百貨店新聞社 편·발행 (1939)前掲書

사진④ 丁子屋本店



출전 : 中江壽美 所藏

사진⑤ 和信百貨店



출전 : 百貨店新聞社 편·발행 (1939)前掲書

사진⑥ 本町거리

⑥-1 本町 입구 (1930年代)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⑥-2 여름의 本町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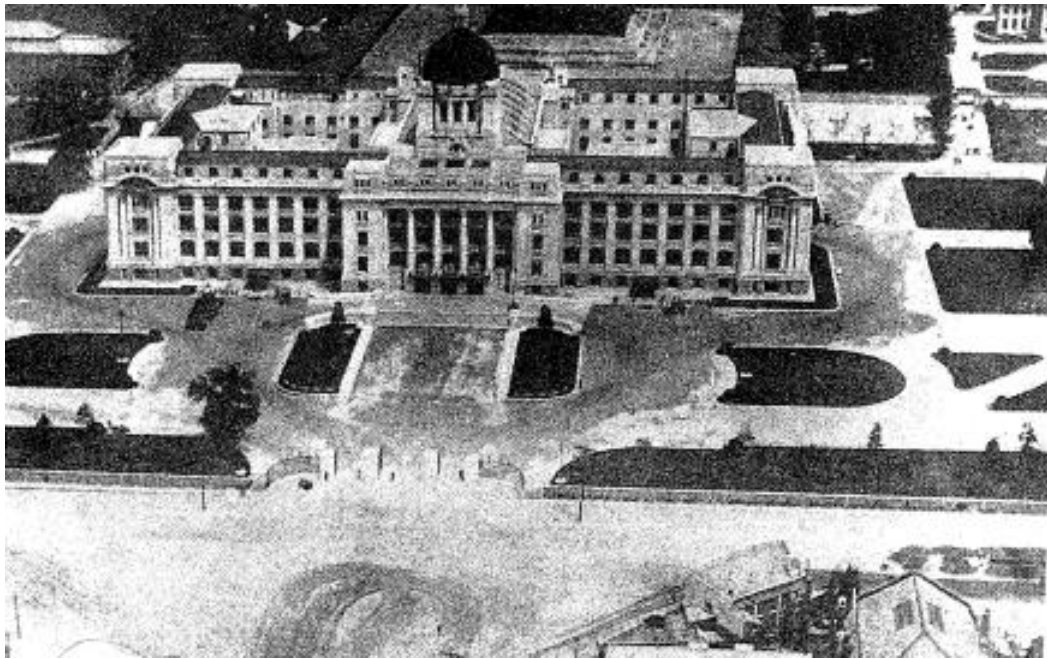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⑥-3 밤의 本町거리



毎日新聞社編(1978) ≪ 1億人の昭和史, 日本植民地史 1 朝鮮 ≫

사진⑦-1 조선총독부청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⑦-2 朝鮮總督府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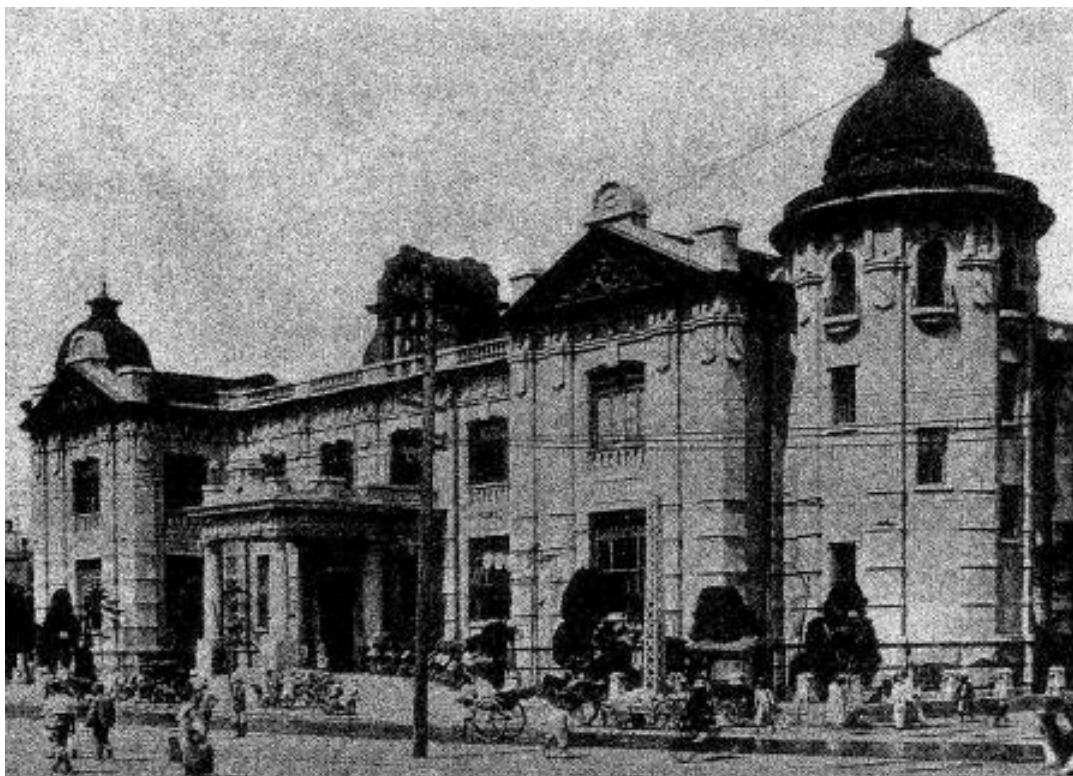
출전 : 三中井 편·발행 (1929), 앞의 책

사진⑧ 경성부청 (194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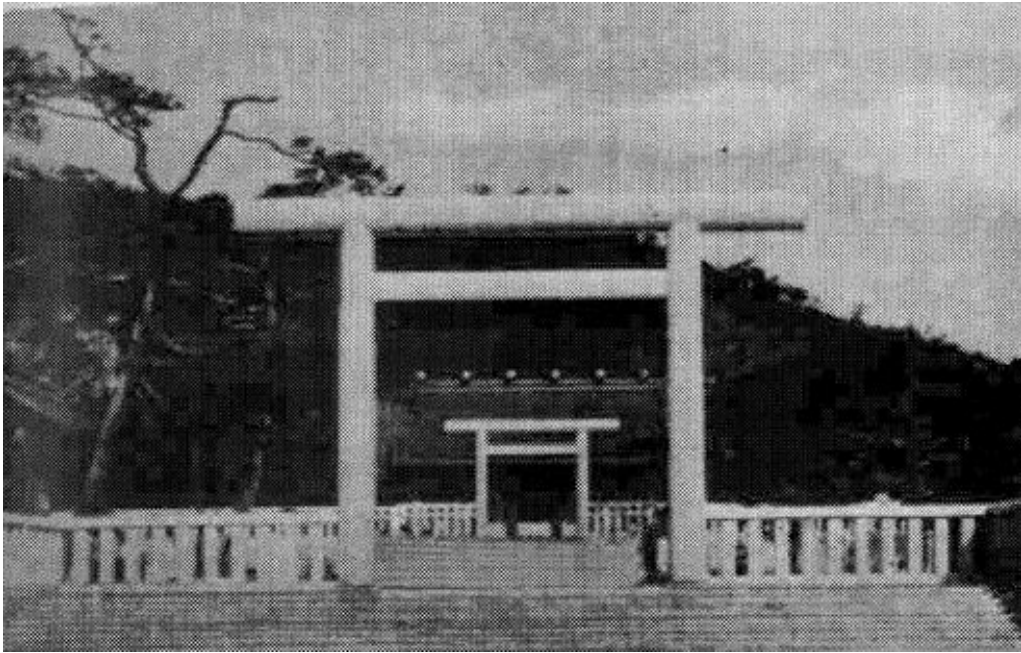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 (2002) 앞의 책.

사진⑨ 朝鮮銀行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⑩ 朝鮮神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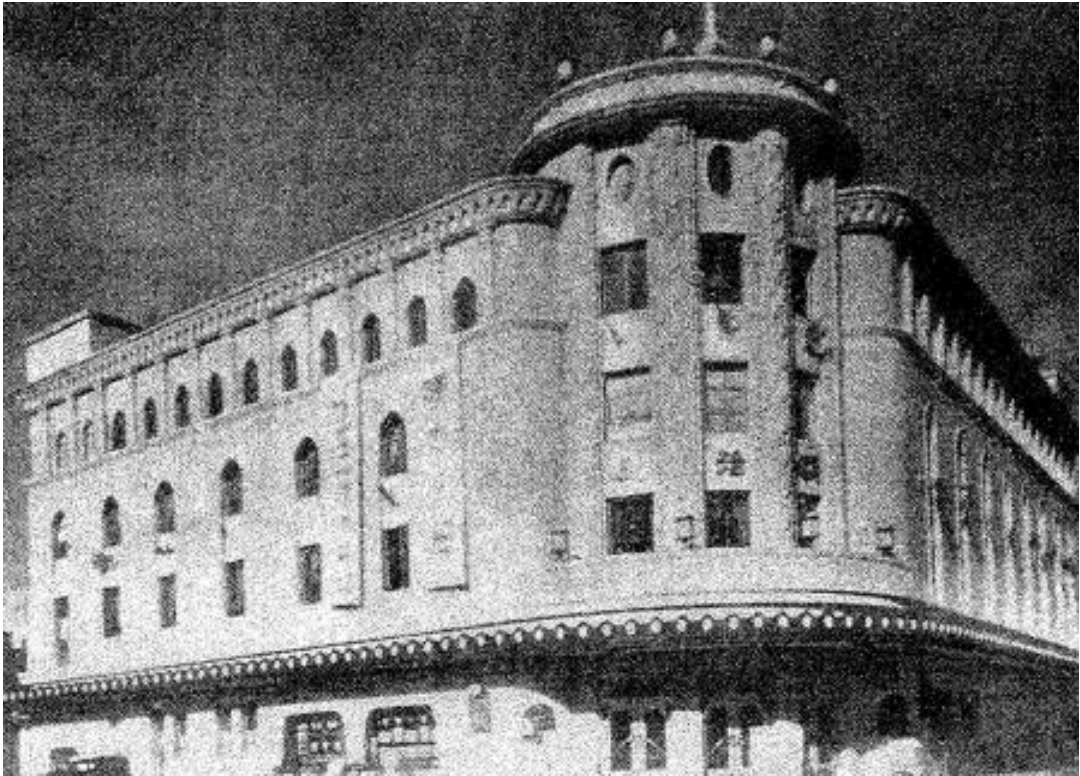
출전 : 九州大學圖書館 所藏

사진⑪ 京城驛(1925)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⑫ 明治座(1930年代)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⑬ 京城中央郵便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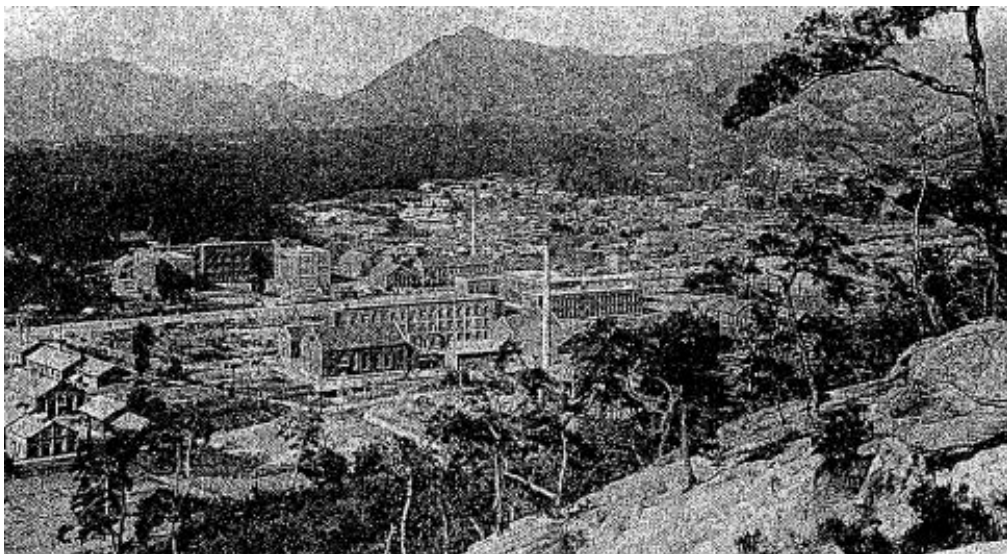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⑭ 東洋拓殖銀行京城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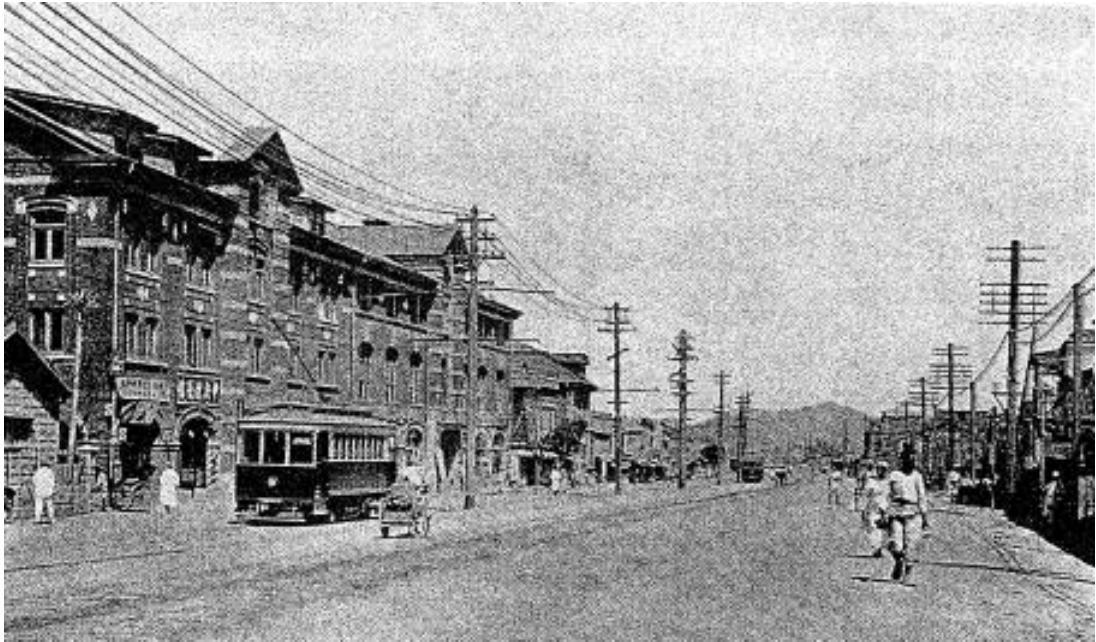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⑮ 京城帝國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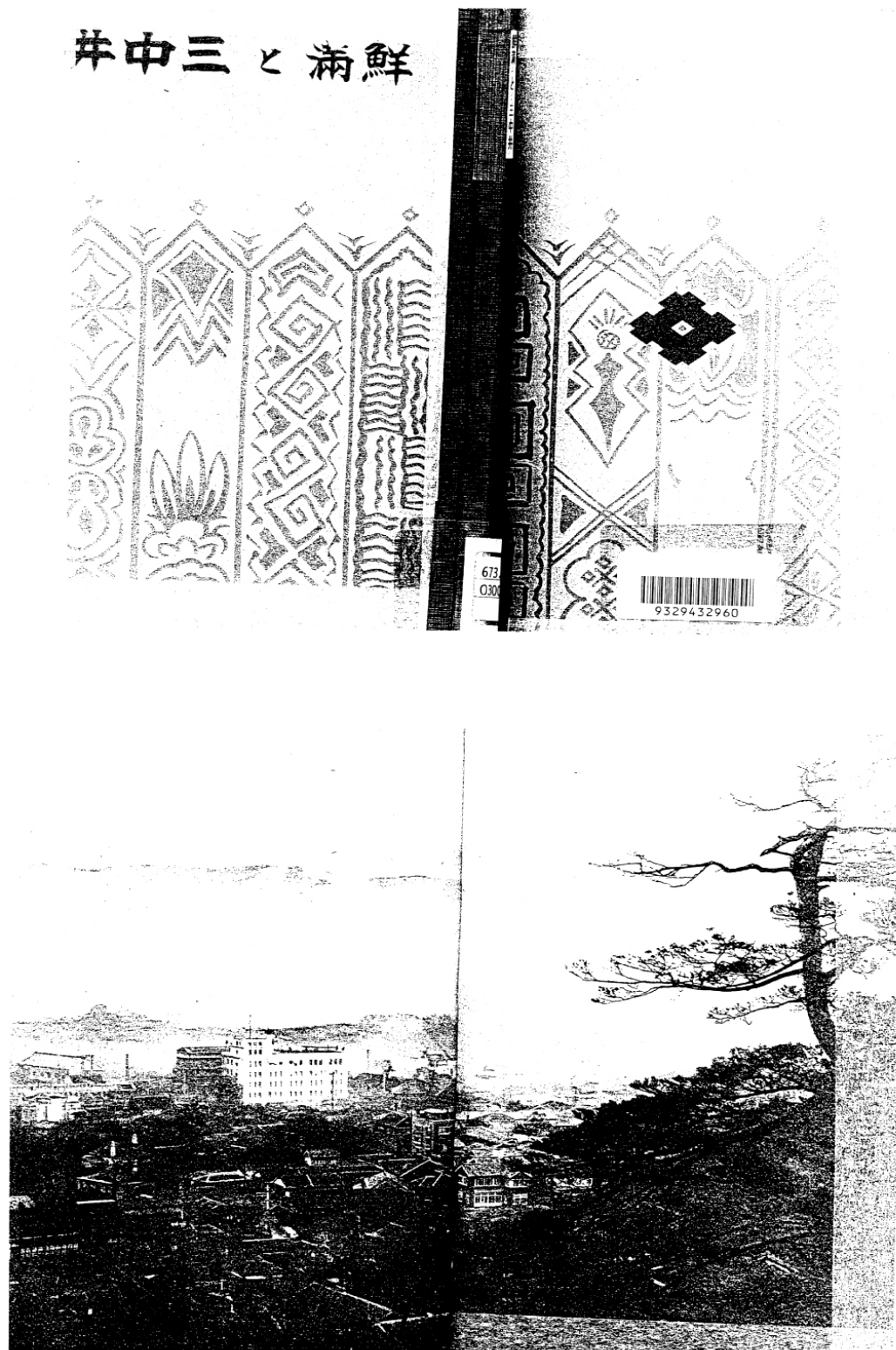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 □ 鐘路一帶 (위 : 낮, 아래 : 밤)



출전 : 서울특별시청 편(2002), 앞의 책

사진⑰ 付録 {鮮滿と三中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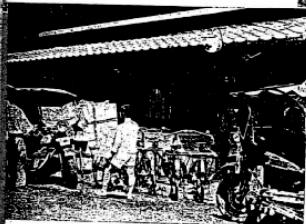


釜山府

[illegible]

戸口	内地人	鮮人	其の他	計
戸数	一一、五三一	二、八六一	一一三	三、五五一
人口	四七、八三六	九、九六六	三六四	一四八、一五六

都入仕都京



京の舞妓



京部仕入部

此の川は山崎が野の地で佳吉より赤
 菊の都となし、特、服賑商工の源
 なし吉き傳統となし、わが工業振興
 は今何處迄の一路をたどりつゝ、
 我が三申井は大正六年四月當
 地に仕入部を設け、國產進行品の
 最速急送、各本支店格指大賣仕入
 の獎勵を設け、針刺開業の商販引
 けずし國となし純實なる商取引と
 近時京阪及全國各地の交通脈道
 となるに及び益々其の業線は日と
 共に繁忙を極めてゐる。



(山笠) 館 別 井 中 三



總行設於中國廣東省廣州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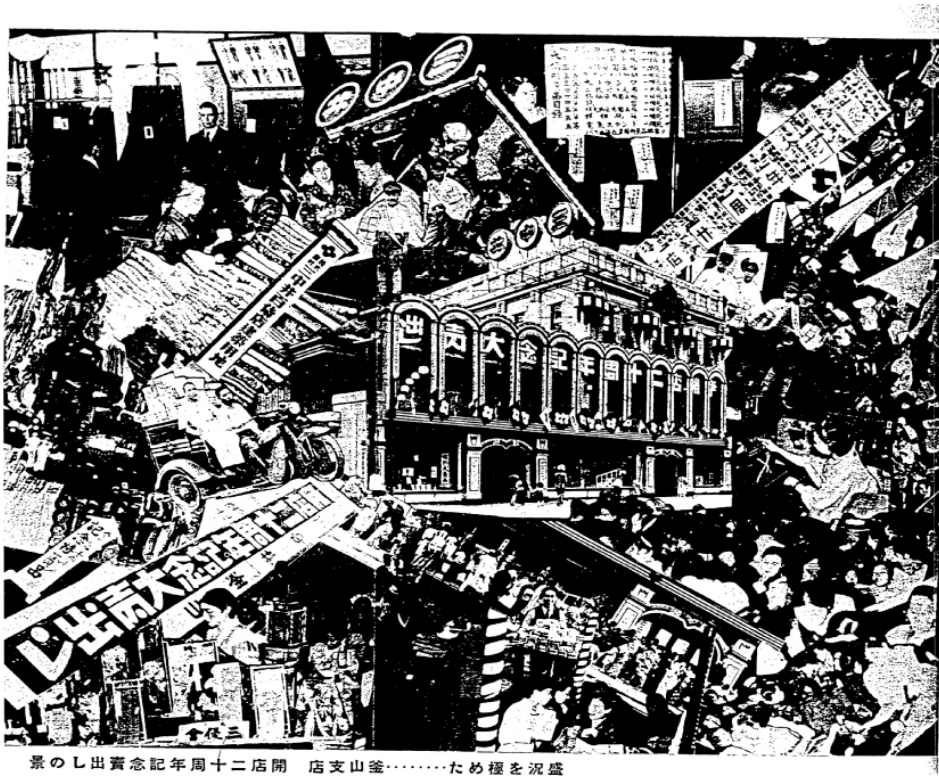
廣州市計委同業公司

店支山第



井服部工機
(美山)

開店	大正六年六月	總延坪	四〇坪
敷地	二八七坪	建坪	二五〇坪
店員	男店員 四五名	女店員	二五名
洋服部稅務員	四〇名	計	一一〇名



景のし出賣念記年周十二店開 店支山釜……ため櫻を況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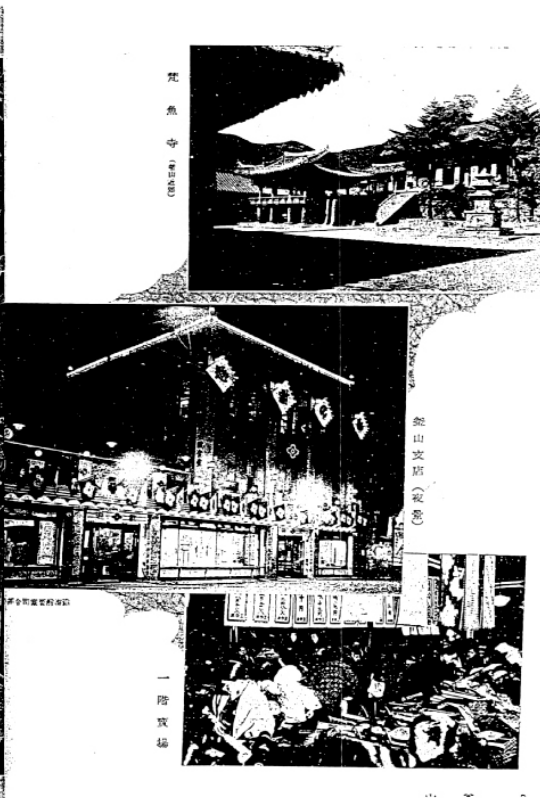


梵魚寺 (昭和三年)

一階賣場



山釜……ため櫻を況盛



梵魚寺 (昭和三年)

釜山支店 (夜)

一階賣場



通 院 寺



通院寺の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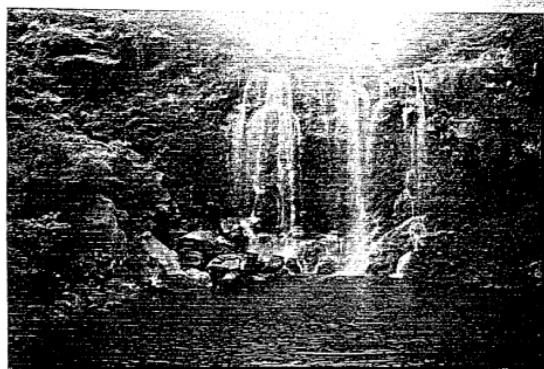
—ロ—ミビトリツ
(内店支山麓 所内案行説)



海雲山麓

山 麓

海雲山麓の風景



海雲山麓の風景



海雲山麓

濟州島漢琴山

朝鮮八景

濟州島漢琴山といふが濟州島金島が即ち漢琴山である。

高さ約二千米の死火山であつて麓には三百近い、寄生火山を従へ、海の中にふりと浮んで、周回約二百四十里、悠大な漢琴山が大きな翼を翳げたやうになだらかな斜面を永年緑上に覆つてゐる。漢琴山の麓は、さきく、の博物學資料に富み、姿壯麗大なる男性的雄姿は、漢山、研究家にとり不思議なほど魅力を持つてゐる。四季を通じて美の島、無来漢琴山は一座は訪ねるべき神祕の島である。

全 景 漢 琴 山

閑麗水道

朝鮮八景

濟州島大郎だ訪れた船客が閑麗水道の美観にあら純然たるたふと云ふことだけでも大きな楽しみがある。斯ふした傳說を有つ船客から閑麗水道に近し一〇軒ほどの間とせば、朝鮮の遺月内海と聞へら、閑麗水道であり、朝鮮第一を誇る海峽光景である。夜明がた漢琴山頂上からの俯瞰はさすがにすばらしい。

鐘鼓のお山に據く鐘は、何と鳴るか、楚と鳴る、閑麗水道に降る雨は、鳥をさする、とめ涙、なみだ雨。

閑麗水道の風景



佛國寺



東萊海雲台

慶州佛國寺 朝鮮八景

あちこちに點在する慶義、牛の横たはるやうな姿、
應有有つ、なだらかな山々の縦横、ぼつり／＼と
散在する森林、すべてが奈良そのまゝの山河であ
る。奈良よりも豊朴であり、古きに育むものであ
る。東西約八里、南北約一〇里の盆地には、新羅
千三百年の人類の處とが積み込んであるであ
らう。史と詩を秘めた慶州佛國寺こそ、たしかに兩
邊開闢を待てる聖蹟である。

若々時月二年 多寶轉法輪石塔
新羅文物至今傳

(金山 朴榮植)
慶州北道

東萊海雲台 朝鮮八景

津々たる暖流に惹かれ、自砂嘴松、長汀曲
浦の温泉、海雲台は雲々たる霞、霞式園景ア
イルを備へ、大衆的平和場として名振る。
新羅の碩學祖教説が「海雲」を岩に刻んだ
といふ海雲臺半島からの遠望、民衆峰より
の水簾橋の夕照、松亭里燈塔を中心とする
島々の散下、いづれも捨て難い、聖蹟である。
また朝鮮列島の南ある東萊海雲台は青森に金
井山神社を、峰づたひに古刹寶雲寺を有し、
古くより聖蹟として知られてゐる。開闢
なる繁華的海雲臺、柱歌の蘇さんさめく東
萊、各々二つの地方特色を物語つてゐる。

大邱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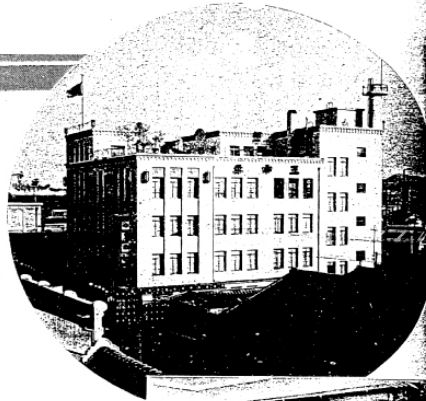
大邱は慶北道廳の所在地で、南鮮に於て釜山に次ぐ大都市
にて、島十郡の政治經濟の中核地として、新文閣工業の盛
なる點に於て、西鮮の平壤と相対峙し、市街の發展交通機關の
整備等大都市として知られ、施設を有して居る。
日露の役後、釜山鐵道通過線急急に繁榮を來し、交通上四
通八達、樞紐にある關係上、今日では慶北、慶南の境にとど
其の經濟範圍にあると云はれて居る。
附近は地味豊沃で、果樹、蔬菜の產出を以て知らえ、
殊に苹果に基つては、果實の產出を以て知らえ、
毎月定期日開市される西門・東門の兩市は一年間の取引
高二百餘萬圓に達し、殊に十月に開市される聯合市は、農産
を主要取引とし、一箇月を通じて開市され、全鮮より參集
するもの數萬に上り、毎日白衣の人は、青島路の盛況を呈す
る。
三中は非停車場より五分、商店街の間に併し、昨秋
落成の自來の新橋は大邱新名所として、市上層は全市を一
覽に收め得る。

戸口	内地人	外人	その他	計
戸数	六二七	一六二〇	一一三	三二六九
人口	三六、八二二	一七、七五五	四、一〇五	五八、六八二

3 社 7



大邱支店全景



大邱支店



(景夜) 店支耶大

應 廣 北 道 大 邱 市 丁 自 六 十 三 番 地
開 店 明 治 三 十 八 年 一 月
敷 地 四 九 〇 坪 建 坪 三 〇 五 坪
店 員 男 店 員 四 十 八 名
女 店 員 八 十 一 名
計 百 四 十 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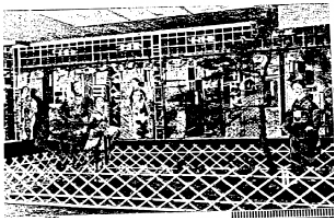
場 賣 階 一



場 賣 階 二



明 公 城 畫



(場賣列陳) 五 階 五 十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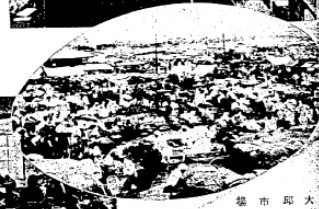
三 階 賣 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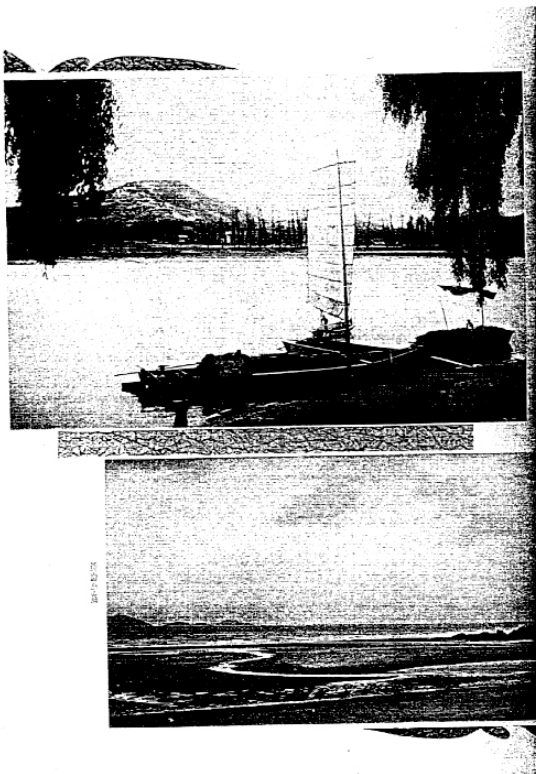


堂 食 階 四



場 市 耶 大





扶餘 朝鮮八景

「國亡びて山河あり」
 悠々たる漢水を有つ錦江を中心として附近一帯の風光
 美は稀に見る。山雲水明の境地であるすべてが百
 濟流亡の哀史を物語り、扶餘の全貌はこれら幾多
 の史蹟で生きたるものである。溯又百濟の史蹟は扶
 餘の所ふした空跡で生きたるものである。春秋の行
 樂地として古くから知られてゐる。

忠清南道

遼山半島 朝鮮八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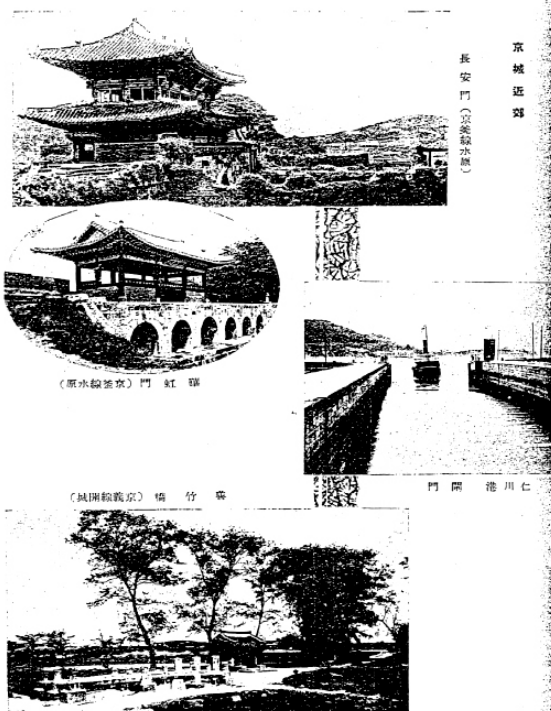
長江自砂がつき、半壁懸石の水樹は夢幻
 絶りなく、史蹟性説に富む瀾洞岬、月明寺
 これら山あり、谷あり、寺あり、海ある麗
 化に富んだ風景は朝鮮では珍しい。

國威堂主人共白 蘇聯仙才來遊寄

風雲日浪海公紅 采石希門地不問

(多山 朴榮基)

金澤南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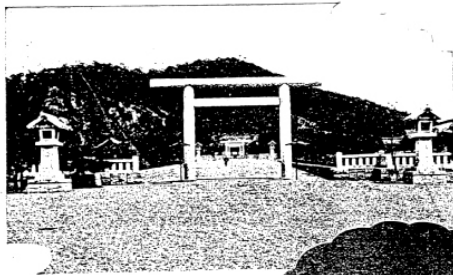
京城近郊

長安門（京畿水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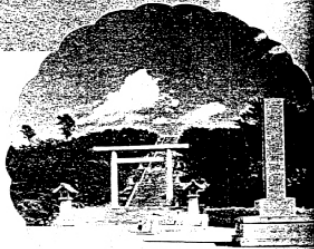
（原水鏡蓋京）門紅羅

門開港川仁

（城開殿義京）橋竹雲



朝
鮮
神
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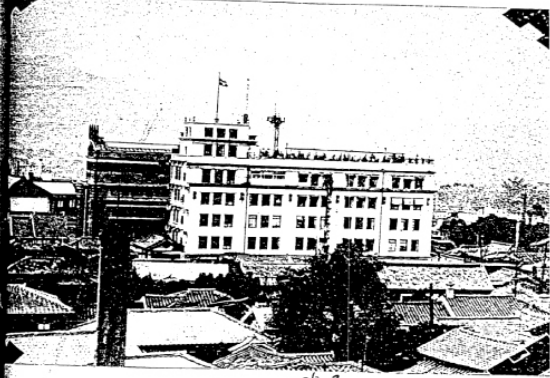


道參表



全
景

神威八達に輝く



京城本店

京都府京都市本町一丁目四十五番地

開設 明治四十四年三月

敷地 八〇八坪八合

延べ床 延べ床五ノサン式 鉄筋コンクリート大階建 (一部日本建)

延べ床 六六六坪

延べ床 二五〇四坪

延べ床 一七二名

延べ床 一八二名

延べ床 三五四名

計

1911



参閣宮内
庶務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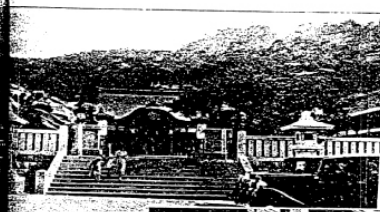
三階表集



臨府城京



閣公リコ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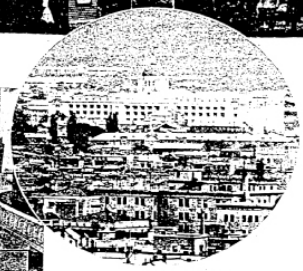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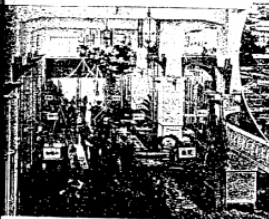


京城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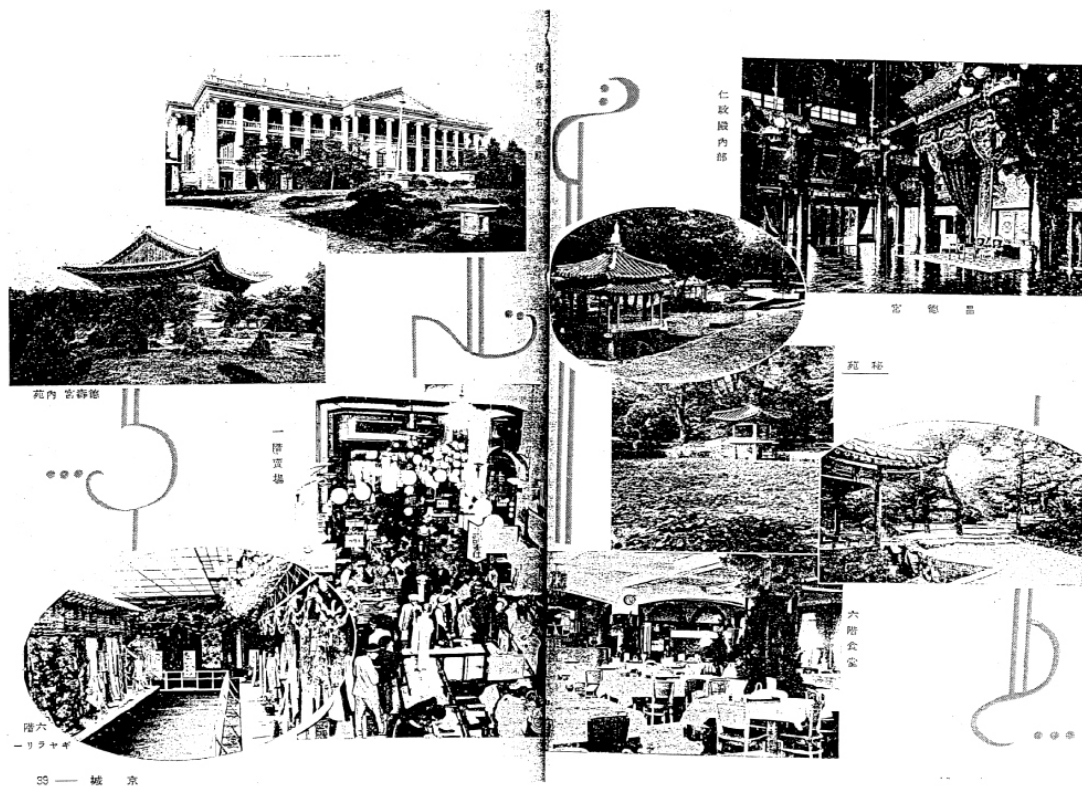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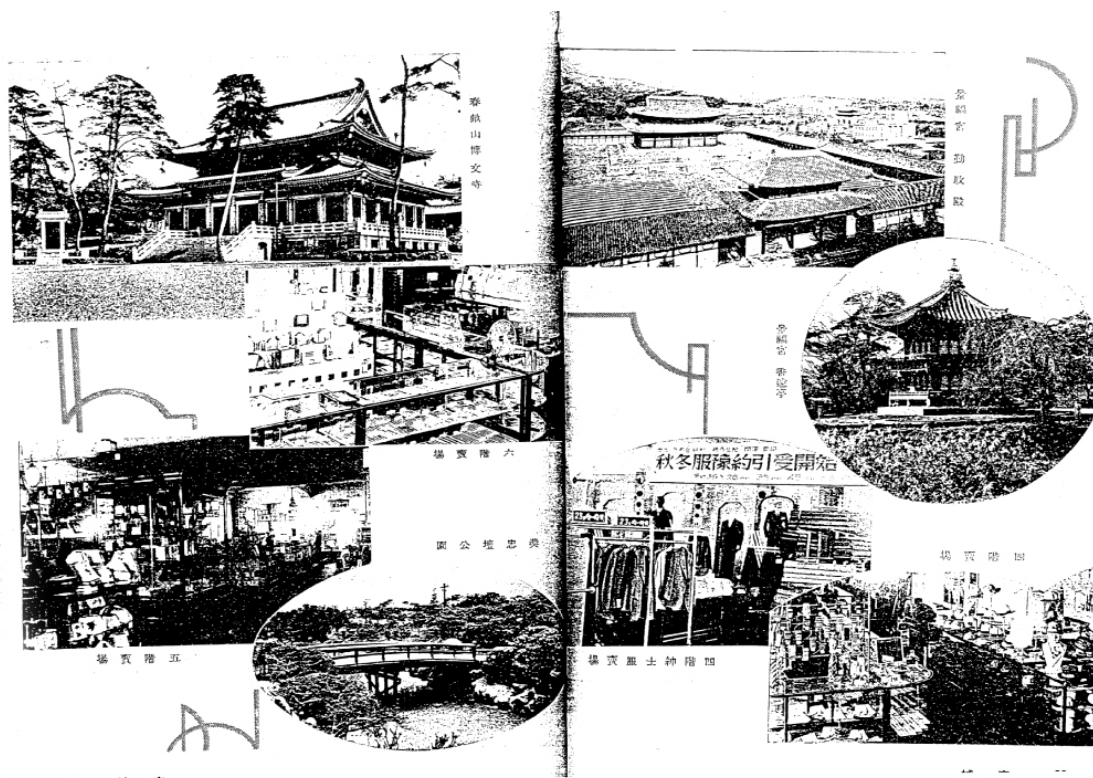


京城本店 (本町側)

場賣路一



総府府府總
リよ上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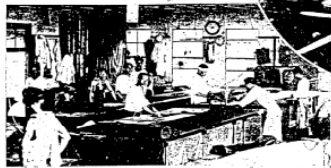




山梨県立工業博覧場



裁縫教室



深層部・用達部工場
東京府山梨町二丁目十番地
敷地 三二七坪
延床 一三二坪
総延床 三六八坪
工場従業員
男工 三六五名
女工 三六五名
計 七三〇名



御膳門（南大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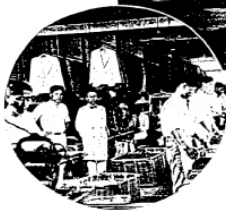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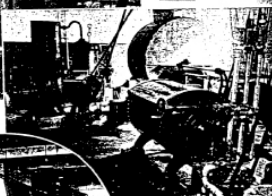
京城總館



洗心堂商店組合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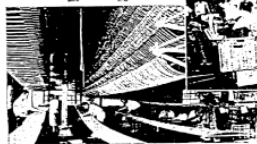


クリナーン工業博覧場



仕上

クリナーン工場
京城市外舞鶴町
敷地 六六八坪
延床 二二六坪
総延床 三八五坪
工場従業員
男工 十七名
女工 四十五名
計 六十二名



水洗



洗濯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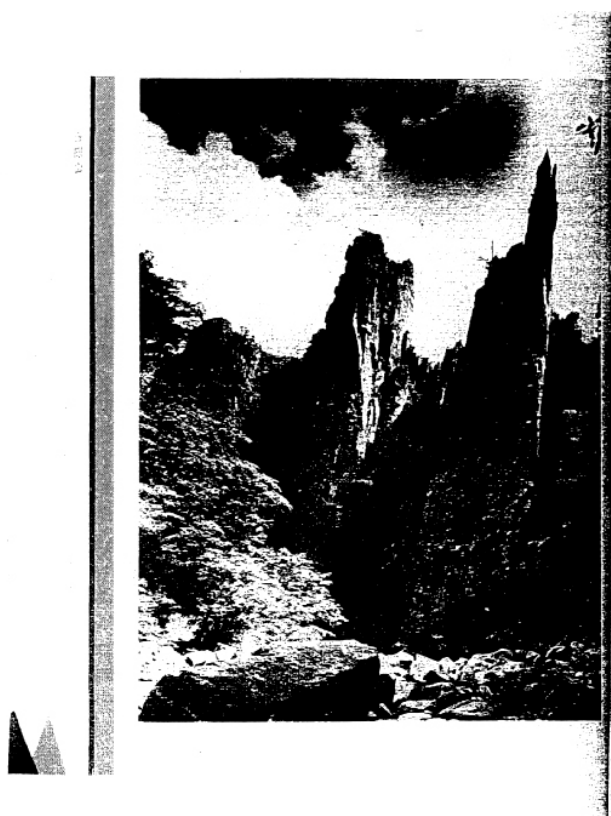
用達部



敷地 三二七坪
延床 三二七坪
総延床 三二七坪
工場従業員
男工 三五八名
女工 三五八名
計 七一六名



深層部・用達部工場



全剛山

朝鮮の謎に

金剛山を見る時には天下の山水を翻る勿れ

徳富蘇峰曰く

一座山中の人とならば、身は殆ど人間に轉れざる天地竊経の大氣を快楽するが如し

菊地幽芳は

百の郡馬漢を以てするもなほ金剛山の雄大怪奇を説明することが出来ぬ

自然が生んだこの驚世無比な雄峰美、溪谷美が如何に彫つてゐるかを物語る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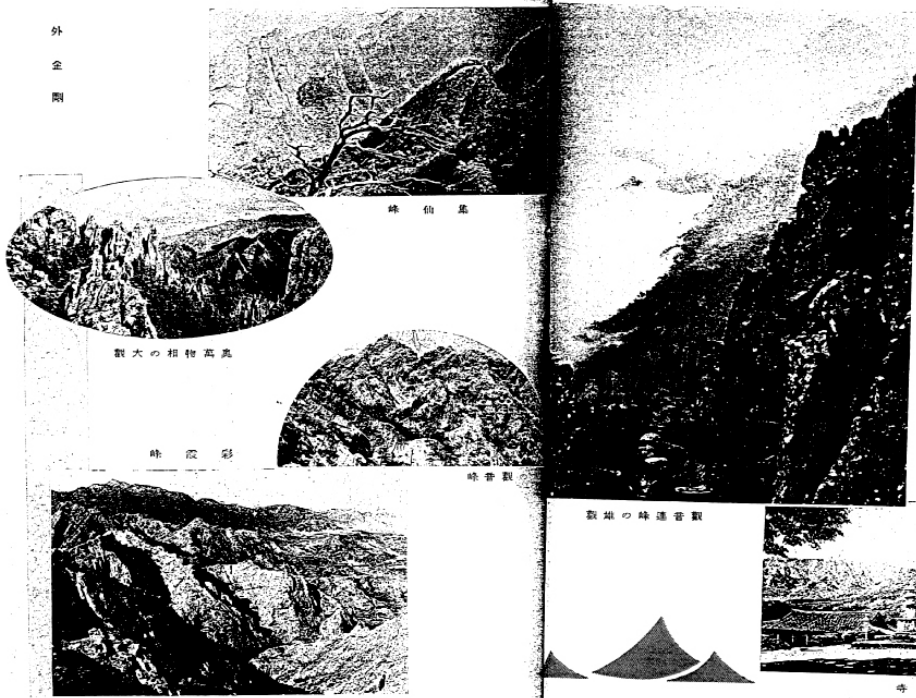
玉流溪谷



九龍瀑

全剛山

金剛山は半島東海岸に沿ひ南北を縦走する智異山脈中の一峰の峻険を稱しは歴道の龍巖、高城の二郡に跨つて偏安に十八平方里に亘り日本海と内陸との斜面二帯に分たれ前者を外金剛、後者を内金剛と稱せらる。金剛山が世界的名山と會讃される所以は古來萬二千峰と讃はれる無數の峻嶒、溪谷、瀑布、深潭、峯述等の組成する豪華雄麗、或は清淨幽寂なる景緻と朝鮮藝術の筆を充めた瑣瑣朱紅の長安寺、慶興寺、神溪寺、松崎寺等の大伽藍は自然美と渾然一色して蒼々に強い印象を與へてゐる。



四座峰、上野峰、五峰山、参差峰、文殊峰、牛頭山、馬頭峰、觀音峰、聖母峰、世尊峰、集仙峰等の秀峰屹立する其の間を風井川源流の本支流が流れ參差峰頂の北麓を流し、世尊峰、集仙峰頂の新萬物相、聖母峰頂の萬物相と相俟つて外金剛を代表し雄壯雄大なる男性的山岳美と峡谷美をなしてゐる。

峰仙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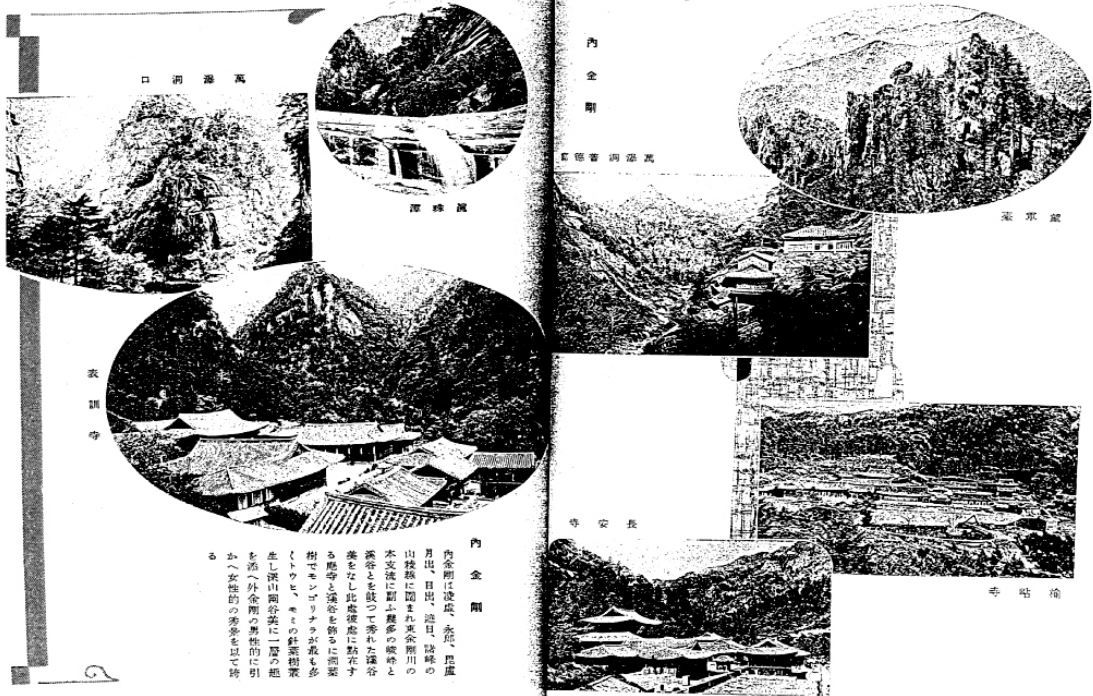
觀大の相物萬集

峰霞彩

峰香觀

觀雄の峰連香觀

寺漢勝



口洞深萬

潭神萬

口洞深萬

深京深

表訓寺

寺安長

寺帖楠

内金剛は波丘、永田、馬頭、月出、日出、海日、隠峰の山麓に開まれ支那湖川の本支流に開まれ難多の峰々と溪谷とを挟つて秀れた溪谷をなし此處溪谷に點在する聖母と蓮花を飾るに萬葉樹でモンゴリアが最も多くトウヒ、モミの針葉樹が産し溪山間谷間に一層の趣を添へ外金剛の男性的に引かへ女性的の姿を以て持つ。



屏州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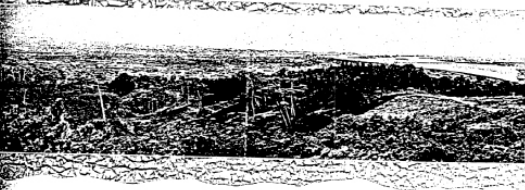
咸興支店
咸興南道咸興府本町二丁目一七五番地
開店 昭和三年九月
敷地 二五三坪
延坪 二四五坪
延坪 三三三坪
男店員 三十二名
女店員 十五名
洋工場従業員 八名
計 五十五名



咸興支店



咸興 57



咸興市街

咸興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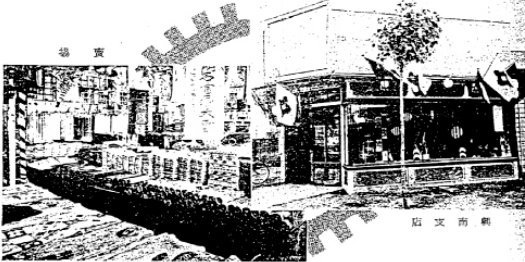
古城咸興府の要衝として政治經濟上重要な
してゐたが最近此地方を中心とする交通の
発展を期し水力電氣事業等大企業建設に
及び農産物人口の増加、市街の膨張を来
し今日では咸興府の所在地として北鮮
第一の大都となり、市況は活氣溢れてゐ
る三井物産の中央本町に佐し軍需品大
都町通りの交通地にて往來繁く地利の便
利を得て日々多數の旅客を胸へ感嘆を成し
てゐる



本町街



興南支店
咸興南道咸興府本町二丁目一七五番地
開店 昭和三年十月
敷地 二五三坪
延坪 二四五坪
延坪 三三三坪
男店員 三十二名
女店員 十五名
洋工場従業員 八名
計 五十五名



興南支店

咸興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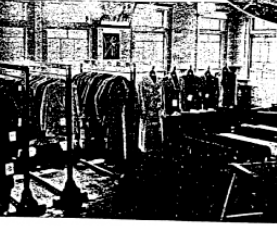
二階賣場



咸興市街



鑒山麓の孔子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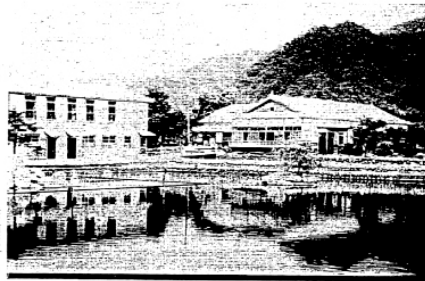
四階賣場



朝鮮高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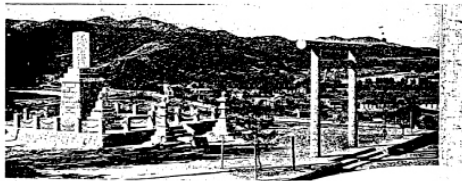
赴戰高原 朝鮮八景
赴戰高原は極めて大陸的な地形である、二千
四、五百米の山々に取かこまれ、山は地く
のべりと横たはり、落葉松と白樺とが先繁り
華朴可憐な高山植物が一面に咲きこぼれる夢
路などは、たしに大自然のすばらしい距離
さである。
この大高原の中央部を鴨綠江へ注ぐ二條の河
が流れてゐる、即ち赴戰、長津の二大江であ
つて、この二の河とべらばうに大きなダム
で堰き止め、開闢され、穀十野に成るとい
ふ大案を作つた、斯うした人工美と自然美
の調和は訪れる者をして、驚嘆せずには置
かねである。

成 龍 閣 園



朱乙温泉

朱乙温泉 朝鮮八景
朝鮮の最高峰延禧山が日本海に向つてだらかな終
線を引く、朱乙温泉と市老川とがV字型に合するその
兩城に、市上、城野などの温泉に少し降つて温泉、か
ねたの温泉がある、これらの温泉と延禧山との雄
偉壯麗なる姿態を、取入れた温泉地帯を総稱して朱乙
温泉と呼ぶのである。
主峰延禧山をばじめ首に近い、高峰がしのびる間隙に
黄金色をもちく雲雲は霞に、心を打つものがあり市
老川の流るゝところ、延禧山麓がついて素晴らしい溪
谷である温泉は延禧山麓に見る湧出を有し、かねた温
泉には四千坪にも及ぶ大きな温泉プールが延禧山内
に誇り得る設備がある。
かくて温泉、溪谷、山岳、海岸、あらゆる自然美を具
備した朱乙温泉は、確に朝鮮を代表する理想的温泉地
といへよう。



峰 峨 忠 南 羅



朱乙温泉



港 津 清



池 津 羅



街 市 基 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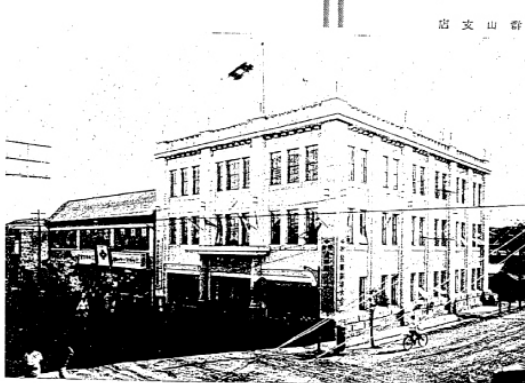
群山支店
開店 昭和四年九月
敷地 三八〇坪
建物 一四七坪
店員 三六七坪
男店員 二十七名
女店員 九名
計 卅六名
洋風工場職員 八名
計 卅四名



群山港



群山港の風景



群山支店

群山府

群山は朝鮮の京城と稱せらるる全北、忠清の兩平野を控へ富地に建ち、米穀は移し、穀類に上り米の輸移出高も金海第一位にあつたので米の群山と稱せられてゐる、昭和七年の本港倉庫移出三千三百八十五萬餘圓、輸入一千四百九十九萬餘圓に達し米のみにて年額二百萬圓に及んでゐる、市街は群山に岸に向ひ伸展し内地人街は江岸に寄り附き、町並を見せ全州通り、明洞通りは市街の繁華にして、税關取引所附近は貨物取引の中心となつてゐる、三井は交通便なる明洞通りに位置し、白雲の驛は行人の目を引き、日々多量の旅客を迎へ、除雪を始めてゐる。

戸口	人口
内地人	3,000
朝鮮人	1,000
其他	100
計	4,100

内蔵山白羊寺 朝鮮八景

朝鮮東部の山脈を貫き、奇岩絶壁を挟んで南北八軒ほどの間に白羊寺と内蔵寺とが點在し、諸谷深く、諸峯峻く、雲霧として疾雨噴く、摩するものは唯小鳥の群の鳴りと清流の響のみである。古來から振興の名勝地として南鮮の行樂地であり、平和地である。

全羅南道



内蔵山白羊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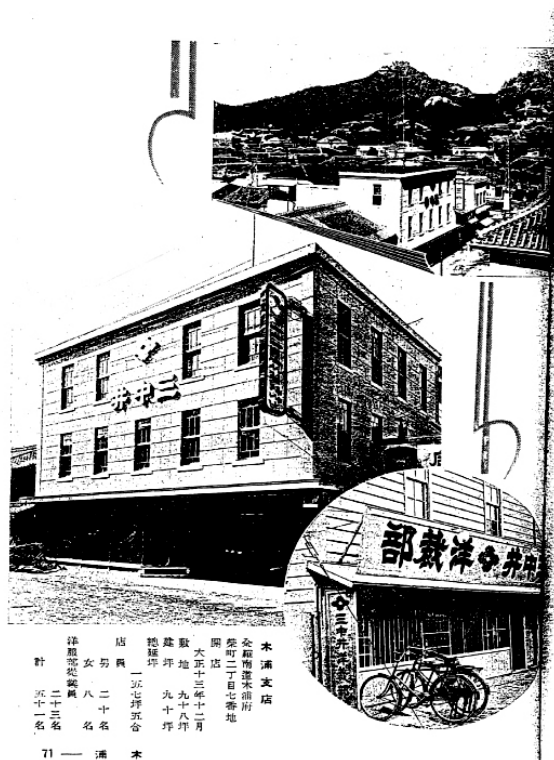


智異山 朝鮮八景

東北智異山は南鮮では、ちばん高い奇嶺である、太古の森林は、幾重もの霧雲に埋められ、草木の倒れたのが横たはり、物産、ほとひの深い谷を作つてゐる、これら原始林に蔽はれ、鬱蒼たる風貌に智異山より受ける印象である。

古來歴史的にも幾多の傳説を持つ古刹群を擁し、朝鮮の難津の精ある老僧など、遊覽地として殊に避暑地として、殊に大に期待をかけられてゐる。

全羅南道

[illegible]

光州神社



光州支店



光州支店



光州支店
全羅南道光州邑光山町一丁目七三
開店 昭和七年六月
敷地 二百六十三坪
建坪 二百一十一坪
男店員 七名
女店員 八名
計 三十六名

光州市街



光州府

全市一名山嶺等山北麓に依り光州川は市街の西を貫流し一帯肥沃なる
緑野の地帯が延びるが、風光明媚な地方で新報の東部第一の都
市を夢見て進歩した後、官公の繁華となつた光州は、古來
南鮮の名城として政治經濟の中心となし、現在全羅南道の所在地であ
る。三井は市の繁華に位
置し土地の發展と共に其の
基礎を築き市民の信用を博し、開
店幾何もなされるに隨つて業
務を拡張する。

戸口

戸数

内洋人

外人

計

一四四四

六五八

二六〇〇

一〇

七〇

三〇

一〇

一〇

全羅南道銀行



俗離山

朝鮮八景

朝鮮の名山で、五岳と稱する新羅神代の石鐘
子、神龍、それに洞窟の水晶、石燈籠、石炭、石臼等
を産出せしめるものが多く、洞窟も数箇の洞窟が幾
重のやうに連なり、洞窟と洞窟とを繋いで立てる家敷
は、其に雄大無比である。

文獻家、韓陽

韓陽千林九次

(金山、朴榮、林)

忠清北道

海印寺溪谷

朝鮮八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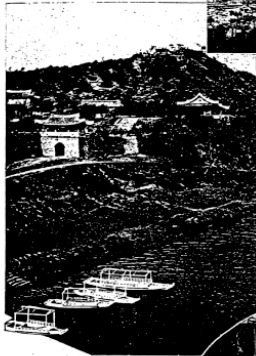
山嶺、溪谷、森林、洞窟、神龍の神蹟、そ
れに特有の地味美を備へる朝鮮の誇り、洞窟、溪
谷の代名詞である。

新羅末期の碩老、新羅が盛んなといふ五流
溪、洞窟、神龍の神蹟、洞窟、洞窟の水
の音を聞いてゐると、實に別天地の感があ
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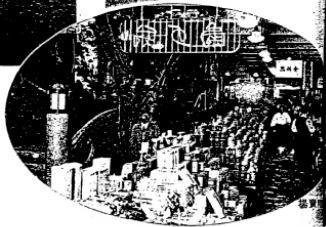
忠清南道



終光亭



風雲の歌の及門御天
(ハニハ門天)



引 — 儀 平

平 康 安 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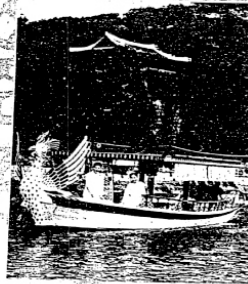
平安南道平康所本町七番地
開 店 大正八年十月
敷 地 二畝八坪五合
坪 二一八坪五合

電話 一〇八三八号

(別阿金賣) 店 文 景 平



最 后 臺



船 雲

牡丹台

朝鮮八郡

今全世界に及びてゐるのが韓国の出土品
これら朝鮮な二千年前の大藝術を秘めた博物館
館を中心に建國史を語る子陵、日清の役原
田重吉氏の朝鮮に於て知られた支武門、古
朝鮮の寺、浮城、文峰の像、日清の役にお
ける牡丹臺、乙卯案の古蹟としての神話リ
で、月光に輝き大西門、山と雲、高麗と眞
陸が相映する風景は鮮やかに見られ終空であ
る。

平 康 安 店

夢 全 浦

朝鮮八郡

ここに會から「明砂」星雲の花といふ
詩が幾つである。
純白な砂丘が雲かたに輝き、銀砂の海
と白砂の陸とを割るところにたゞ一線、
それは雲形のなだらかな曲線であつて、
砂丘の美しさと相俟ち、夢の國、夢の國
の魅力である。

明砂・星雲の花よ
花散るを離しむけれ
明砂三月、再び来れば
花散きまた来るべし
我が人生一定住れば
復歸るの地ぞある
(詩人全浦)

平 康 安 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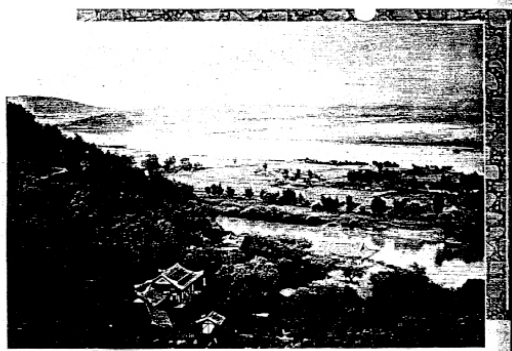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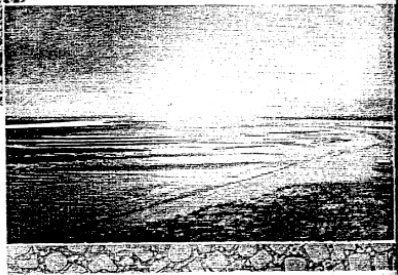


表 丹 花



つ 花 子



(參 夜) 店 支 順 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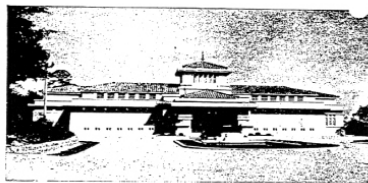


魚 鼓



場 賣 贈 二

85 — 順 平



館 物 博 漢 平

門 同 大



門 武 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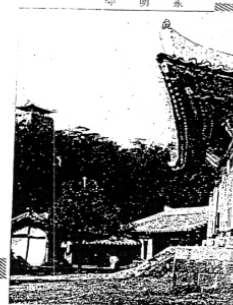
87 — 順 平



七 生 門



樓 勢 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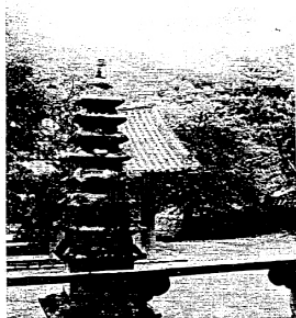
空 明 永

統軍亭

朝鮮八郡

朝鮮最北端、悠大な鴨綠江の流水を俯瞰して、對岸の虎山、丸蓋山、五龍背の嶺、四國邊山を望み、萬國橋を俯瞰するに基き、統軍亭である。これらの山々はいづれも目前、目前の歴史の舞台に關係深いものである。時、遊り人、遊れどアサレの流水は来へに、統軍亭を望み、掲げられた幾多の標は、これら山々を世に世に打たれたものが多い。

平安北道



妙香山

朝鮮八郡

妙香山は古くから朝鮮四岳の一に数へられ、僧賢の隆、聖せし聖地としての保護が幾つてゐる。朝鮮の延長によつて交通の便開け、漸く世人の認めるところとなつた。巨龍峯を主峰として峰巒連立し、奇形怪状等が中腹にあつて登山の難地となつてゐる。見方に依つては金剛山を望むといはれらる。極めて變化に富む山貌美である。

平安北道



(一九九四年) 妙香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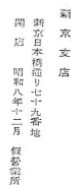
新羅州鐵橋と鐵道



新羅州鐵橋 (一九九四年)



新支店従業員	
男店員	二三名
女店員	四名
工場従業員	二一〇名
計	二三七名



新京特別市大同大街

六〇——六三番地
大同大街新築用地

170005
E 6001146

月建壹工場
工場定平
一六三平

六六八坪

[illegible]

昭和十一年十一月一日印
昭和十一年三月三日發行

『鮮滬と三中立』 齊雲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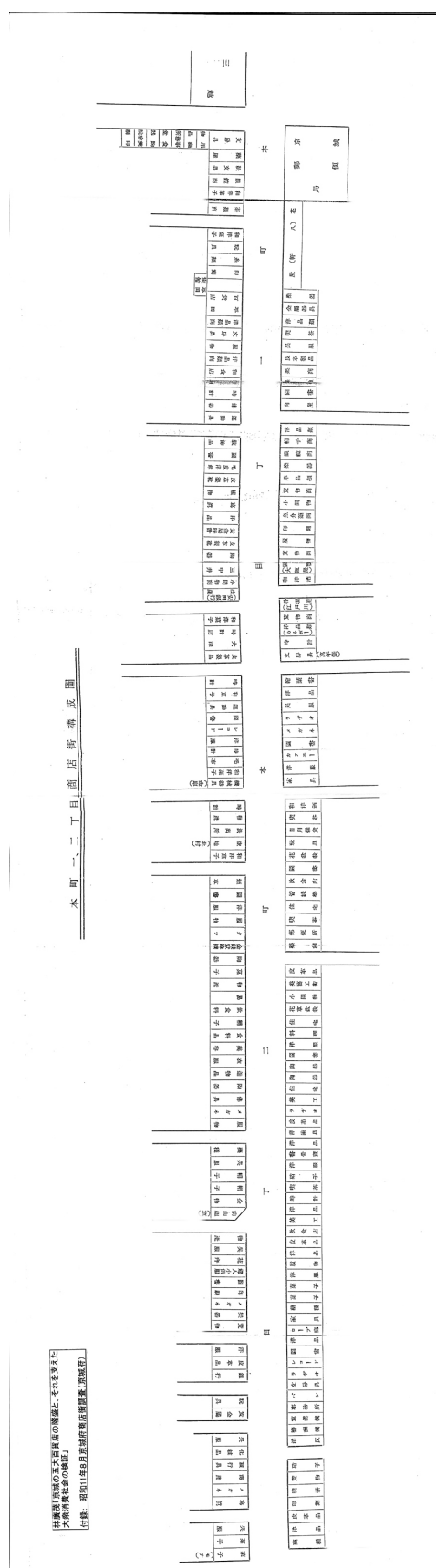
編輯者 大橋 平 衛

印刷所 朝鮮印刷株式會社

發行所 京城南門町一丁目三十三番地
株式會社三中立

編輯後記

本編輯に關し名所史跡の文獻並に寫眞の御酬
應を蒙ふしたる鐵道局常事者殿及朝鮮八景八
跡寫眞の貸與を受けし山本三造殿の御好意を
茲稿に際し深く感謝致します
稿者



이 논문은 경성의 5대 백화점(三越, 丁字屋, 平田, 和信, 三中井)이 융성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와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가 해방 이후의 한국에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35-40년에 백화점이 융성할 정도로 조선인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대중소비사회가 출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방 이후, 백화점의 경영·마케팅 기술과 노하우가 한국에 계승된 것은 일본의 수준이 한국보다 높았고, 한국·한국인이 일본의 사회·정신문화에 익숙해졌으며, 移轉에 대한 한국측의 열의·노력이 일본측의 협력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역사학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적응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조선사회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특정 현상을 너무 浮彫的으로 강조하거나 ‘昭和’ 등의 용어를 본문에 노출시킴으로써 논의의 信賴性을 떨어뜨린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이 논문은 풍부한 대중소비사회를 검증한다면서 5대 백화점을 고찰했지만, 당시 5대백화점의 매출액은 전체 상점 매출액의 5.6%정도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진 분야에서 나타난 거품현상을 가지고 대중소비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 논문에서는 ‘풍요로운 대중소비자사회의 출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부 현상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닌가? 1930년대의 경성에는 離農民 등의 土幕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실업자는 넘쳐났고, 조선인의 夜市場이 번성했다. 일부의 부자들이 소비에 몰두하는 현상은 어느 시기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것을 ‘풍요로운 대중소비자사회의 출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 時代相을 왜곡할 수도 있다.

둘째, 조선인이 백화점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조선인의 일본사회 적응화’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다. 일본의 백화점은 미국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平田百貨店の 주인 平田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트에서 20여년간 잡화상을 경영한 적이 있다. 三中井百貨店을 창립한 中江도 미국 여행을 통해 침단의 商術을 획득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인의 미국인 적응화’, ‘일본사회의 미국 적응화’라고 표현하는가? 조선인이 일본식화 된 백화점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백화점 문화는 미국에서 탄생하여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일본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화신백화점의 朴興植조차도 컬럼비아대학 출신의 전문경영인인 李肯鍾·韓昇寅 등을 영입하여 미국식 백화점 경영의 노하우를 도입했다. 대구에서 茂英堂이라는 백화점을 경영한 李根茂는 상업영어를 배워 서양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歐美의 유명한 백화점 경영자의 傳記와 經驗을 통해 경영기법과 경제지식을 획득했다. 한국인은 일본인 백화점을 환상과 절망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시 ‘혼부라(本ぶら)族’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養正·徽文·普成·培材 등의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혼마치(本町)’의 백화점에 가서 놀다가 종로의 화신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풍조를 일컬었다. 이처럼 식민지기의 백화점 경영에는 조선사회의 일본 ‘적응화’와 조선인의 일본인 ‘적응화’가 아닌 측면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전후에 일본식의 백화점 경영기법이 그대로 한국인에게 계승되었다고 본 것도 일본인

중심의 관점이다. 미국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은 일본의 경제시스템 중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해방 이후 한국인이 기울여온 근대화·현대화의 노력을 세계체제의 변화 속에서 다각적·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필자 답변]

정재정교수의 비평에 감사드립니다. 당시 5대백화점의 전 상점과의 매상 비율이 5.6%였다 하더라도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단 경성의 공설/사설시장의 매상(연간 약5~6,000만엔)에 거의 필적할 규모였다. 어떤 시대에도 백화점 자체가 전 소매업에서 점하는 비율은 낮다. 02년 시점에서 일본에서 6.2%이며, 한국에서는 더 낮을 것이다. 다른 한편 백화점의 소비문화에서의 전과력(새로운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이 모든 소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한 어느 시대에도 해당된다. 경성에서도 5대백화점을 정점으로 천점을 넘는 상점이 폭넓게 혼마치(本町)상점거나 종로상점가를 형성해 경성과 그 주변의 일본인, 조선인을 끌어들이며 번영하고 있었다. 백화점이 번영의 상징이 되면서 주변에 새로운 상점이 잇달아 늘고 백화점은 증축을 거듭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곤궁한 자가 대단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풍요로운 대중소비사회가 확대된 것이다.

“적응화”란 조선인의 민족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 일본인이 가지고 들어간 사회/정신 문화나 경제/물질 문화에 적응한 것을 의미한다(동화가 아니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압도적 영향 하에서 ‘미국화’되었다고 얘기되었지만 그것은 ‘미국 적응화’의 오류이다. 조선인의 ‘적응화’는 선택의 여지없이 일본에 의해 추진되었다. 일본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적응화’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적응화’를 통해, 구미 백화점에 적응화 된 후의 일본인 경영 백화점에 조선인 실업가가 가장 강하게 이끌렸으며,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발하는 일본 소비문화를 받아들였다. 전후에는 물론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일본의 경영/마케팅을 일본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국에 이전시켰다.

‘쇼와(昭和)’라는 용어가 한국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초래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일본인 상인의 조선에서의 발자취를 검증하면서 일본식 연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서력 연호도 그때그때 삽입하고 있다.